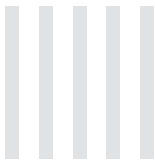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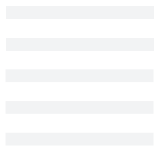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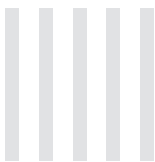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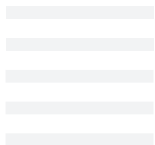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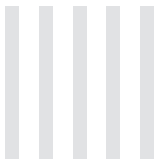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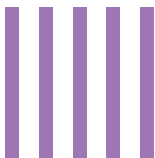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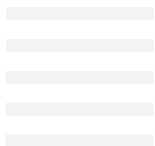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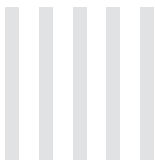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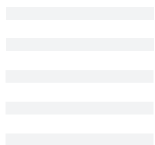




제1편

목포의 문화예술



제1절 목포 문학의 흐름과 활동

김선태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1장 목포 문학

제1절 목포 문학의 흐름과 활동

1. 태동기(1920년대)

1) 개관

목포 문학의 태동은 목포항의 개항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목포항은 1876년 부산항, 1880년 원산항, 1883년 인천항에 이어 1897년 전국 4번째로 개항하였다. 개항을 통한 근대 문화와 문물의 유입은 한반도의 서남쪽 꼬트머리에 있는 작은 포구가 근대도시로 탈바꿈하는 결정적 동인이었다. 그리하여 1897년 목포진은 목포항으로 급부상하였고, 1910년 국권 침탈 후 무안부에서 목포부로 개칭되었으며, 1932년에는 무안군 일부 지역 편입으로 면적이 늘어나 인구 6만의 조선 6대 도시·3대 항구로 성장했다.⁰¹⁾

하지만 개항 이전 목포 문학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90년에 건립·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유산사(儒山社, 현 목포시사)’가 그것이다. 이는 원래 이 고장 문인들에게 시문(詩文)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졌으나, 1910년 국권 상실로 망국의 한을 달래며 우국충정의 비분을 토로하는 유림들의 문학결사 단체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결성 시기가 개항 이전 그러니까 목포진이 무안현에서 분리되기 이전이어서 목포만의 순수 문학 단체로 보기가 애매한 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이 창작한 문학 작품 또한 한시 위주여서 근대문학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 그러나 목포 문학의

01) 1949년 목포부에서 목포시로 개칭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산인 것만은 사실이므로 기록에 포함은 하되, 근대문학의 산물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정한 목포 문학은 근대 문물이 유입된 개항 이후부터 비롯됐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다시 말해 목포 문학은 곧 목포근대문학으로 통한다.⁰²⁾

목포 문학이 근대문학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인 한국근대문학의 출발과 접친다고 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목포 최초의 근대문인인 김우진이고 장르는 소설이다. 그는 일찍이 1913년(16세) 소설 「공상문학」(미발표)을 탈고했으며, 구마모토농업학교 시절인 1915년에는 비록 발표하지 못한 일문시(日文詩)이지만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라는 근대자유시를 창작했다. 이는 창작 시기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로 알려진 이광수의 『무정』(『매일신보』, 1917)보다 4년이나 앞서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자유시로 알려진 김억의 「봄은 간다」(『태서문예신보』, 1918)와 주요한의 「불놀이」(『창조』, 1919)보다 3~4년이나 앞선다. 이는 목포 문학이 그저 한국근대문학의 뒤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된다. 목포 문학이 호남근대문학의 출발점 혹은 거점 역할을 담당했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듯 목포 문학이 일찍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목포항의 개항에 따른 근대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일본 유학을 다녀온 근대 문인들이 전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이들이 일찍부터 문학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1910년대가 예열의 시기였다면 목포 문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형성된 시기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며,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힌 장본인들은 김우진, 박화성, 김진섭이다. 각각 ‘한국 극예술의 선구자’, ‘한국여성소설의 대모’, ‘한국 수필문학의 비조’로 불리는 이들은 ‘목포 문학의 1세대’이자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있었기에 목포의 근대문학은 시작부터 그 탄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목포 문학사에서 1920년대를 ‘3인 문단시대’라고 일컬어도 무방하겠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박화성이나 김진섭이 목포를 떠나 타 지역에서 거주한 반면, 김우진은 비록 짧지만 귀향 이후 목포에서 창작 활동을 펼쳤던 만큼 1920년대 목포 문학사에서 실질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인은 김우진이라고 하겠다.

02) 지금까지 『목포시사』, 『목포 개항 100년사』, 『목포 100년의 문학』 등에 기술된 목포 문학사와 관련한 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노정하고 있다. ① 해방 이전까지 목포 문학의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 전무하다는 점, ② 해방 이후에 대한 기술도 잡다한 현황자료 중심으로 산만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 ③ 시기별 성격, 시대적 배경이나 원인 규명, 문학사적인 해석이나 의미 부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일개 지역문학을 넘어 한국근대문학의 한 메카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목포 문학이 아직까지도 그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목포에 기반을 두고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 개인의 입장에서라도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숙제였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결함들을 극복해보자는 차원에서 비롯된 최초의 시도임을 밝힌다. 그리고 주요 문인이나 활동사항에 있어서도 최대한 객관성에 입각하여 선별·기술하려고 노력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미진한 점들은 차후 다른 글에 의해 보완·수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주요 문인 활동⁰³⁾

(1) 김우진 - 목포근대문학의 출발점

김우진(金祐鎭, 1897~1926)은 목포에 최초로 근대문학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요 한국 근대극의 선구자이다. 그는 목포 문학사에서 1920년대를 가장 뜨겁고 격렬하게 살다간 문인이기도 하다.⁰⁴⁾ 그도 그럴 것이 1920년에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하여 1926년 사망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작품을 창작할 만큼 불꽃같은 삶을 살다간 비운의 천재였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대로, 김우진은 일찍이 16세 때 소설 「공상문학」(미발표)⁰⁵⁾을 창작했다. 1913년 6월에 창작된 이 작품은 원고지 150매 정도의 단편소설 규격을 완벽히 갖춘 작품으로서 이탈리아의 민중시인 다누치오의 「죽음의 승리」와 토마스 하디의 『환상을 쫓는 여인』과 유사한 소설이다. 또한 1915년에는 일문시(日文詩)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를 통해 근대자유시 창작을 시도했다. 그는 애초 시인을 꿈꾸며 1915년 구마모토농업학교 시절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였으나, 정작 대학시절부터는 연극에 심취하여 1920년에 조명희·홍해성·고한승·조춘광 등과 함께 연극연구단체인 ‘극예술협회’를 조직하였다. 1921년에는 ‘동우회순회연극단(同友會巡廻演劇團)’을 조직하여 국내 순회공연을 했다. 이때 공연비 일체와 연출을 담당했고, 상연 극본인 아일랜드의 극작가 던세니의 「찬란한 문」(단막)을 번역했다.

1924년 대학을 졸업하고 1925년 귀향한 김우진은 비록 원치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상성합명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해 목포 지역 최초의 문학 동인회인 ‘Socie Mai(5월회)’를 조직하여 리더로 활동하였는데, 이것이 그가 목포문단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벌인 유일한 기록이다. 1915년 이후부터 창작해 온 시를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던 그는 처음으로 동인지 『Societe Mai』(이는 공식적인 출판물은 아니었음) 제1집에 시 「아버지께」를 시작으로 제4집까지 몇 편의 시를 싣게 된다.⁰⁶⁾

그리하여 목포에서 머문 2년여 동안 「정오」, 「이영녀(李永女)」, 「두덕이 시인의 환멸」, 「난파」, 「산

03) 목포 출생이거나 목포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문인 중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거나, 작품성과 문학적 가능성을 인정받은 문인, 지역 문학으로서 목포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문인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다루었다. 또한 작품 소개는 목포를 소재로 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04) 김우진의 추도회가 1926년 9월 16일 오후 8시 친구들의 발기로 목포청년회관에서 개최되었다.

05) 김우진이 최초로 쓴 문학작품. 문학은 “쓸 데 없는 정념을 일으킨다.”는 백하청(실제 김우진의 아버지 김성규일 수 있음)과 갈등하면서도 문학을 고수하는 주인공 백순자(실제 김우진일 수 있음)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허소미, 「김우진의 시에 대하여」, 『문학춘추』 2014년 가을호, 문학춘추사, 1쪽).

06) 1926년 1월부터 6월까지 연극 평론을 『시대일보』에 연재하고, 그 밖의 평론과 연극평론, 희곡을 『조선일보』, 『개벽』, 『학조』 등에 발표할 동안 시는 오로지 『Societe Mai』에만 실었다. 따라서 그가 쓴 연극평론, 희곡 등이 여러 활자 매체를 통해 발표된 것에 비하면 시 발표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돼지」 등 희곡 5편을 비롯하여 시 50편, 소설 3편, 번역 3편, 연극 및 문학평론 20편 등 문학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⁰⁷⁾ 특히 표현주의에 입각한 희곡 「이영녀」는 당시 유달산 밑 사창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1924년 여름부터 1925년 겨울에 이르는 작품 속의 시간은 김우진이 북교동 자택에 설치된 상성합명회사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때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목포 특히 작품의 무대인 양동지역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주인공 이영녀는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 자신의 성을 파는 매춘녀이다. 따라서 표층적으로 이 작품은 동시대의 피해자로서 여성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매춘에 있어 환전의 주체가 바로 이영녀 자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영녀의 죽음, 다시 말해 매춘 행위의 소진은 남성 중심 사회와 그 이데올로기를 허물어뜨리는 의미 기제로 운용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어둡고 빈곤한 삶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다 죽어간 여주인공에 대한 진지한 보고서이자, 남성 본위 중심 문화의 폐해를 정면으로 공박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⁰⁸⁾

(2) 박화성 - 단편「추석전야」로 문단 진출

박화성(朴花城, 1904~1988)은 목포 출신 최초의 여성 소설가이자 한국 최초의 근대여성소설가이다. 그녀는 1922년 전남 영광중학교로 자리를 옮겨 동료 교사이자 시조 시인 조운(曹雲)⁰⁹⁾과 교유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수업을 하였으며, 1925년 단편소설 「추석전야(秋夕前夜)」를 이광수(李光洙)가 『조선문단(朝鮮文壇)』에 추천함으로써 소설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상경, 1926년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신학년제 4년)를 졸업한 뒤,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여자대학[日本女子大學] 영문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첫 남편인 김국진(金國鎭)과의 혼인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1929년 3학년을 수료하고 귀국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에 그녀가 작품 활동을 한 사실은 등단 이외에는 없으며, 타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목포 문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또한 없다.¹⁰⁾

그러나 등단작 「추석전야」는 목포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서, 이후 그녀가 주로 일제강점기 목포의

07) 만약 그가 사살하지 않고 5년 정도만 더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면 근대 초기 한국문학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많다.

08) 김우진은 보수적인 유교적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서구근대사상을 철저하게 탐닉했다. 그의 사상적 바탕이 된 니체라든가 마르크스 같은 철학자는 물론 러시아혁명 이후의 사회주의에도 깊이 빠져 있었다. 이러한 급진적 사상은 연극에서 스트린드베리(Strindberg, J. A.)의 표현주의와 전통부정정신, 쇼우(Shaw, G. B.)의 개혁사상을 받아들여 했으며, 전통인습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자살원인이라든가 작품세계도 이러한 사상적 측면에서 고찰될 수가 있다. 시 「죽엄」, 「사와 생의 이론」, 「죽엄의 이론」 등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시세계는 철저한 현실부정과 개혁의 세계를 보여준다. 희곡 또한 시대적·가정적 고통을 담은 자전적 세계를 보여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참조).

09) 영광 출신인 조운은 1918년에 목포상고에 입학하여 1921년 졸업한 후 곧바로 영광중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박화성이 3년 동안 영광에 머물 때 소설가로 등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10) 그녀가 소설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여 입지를 마련한 시기는 1930년대부터이다.

노동자나 인근 농촌 농민의 현실을 소설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¹⁾ 이 소설은 1925년 목포에 최초로 건립된 방직공장 직공들 중에서도 압박과 설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여직공들의 참담한 생활을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포의 초기 도시화 과정의 이중성(일본인 마을과 조선인 마을의 차별)¹²⁾도 고발하고 있다.

(3) 김진섭 - ‘해외문학연구회’와 ‘극예술연구회’ 결성

김진섭(金晋燮, 1903~1950. 06. 25. 남북)은 신문학 이후 문필인들의 여기(餘技) 정도로나 여겨왔던 수필을 본격적인 문학의 장르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수필문학의 기틀을 다진 비조(鼻祖)로 불린다. 그는 1903년 목포에서 태어났으나 7세 때 발령을 받은 아버지를 따라 제주 정의(旌義)로 이주하여 정의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무렵 다시 나주로 이주하여 잠시 살았다. 1916년 서울로 이주하여 1920년 양정고보를 졸업하였다. 1921년 일본 호오세이대학 전문부 법과에 입학하였으나 독문과를 선택, 1927년에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8·15 이후에는 서울대·성균관대 교수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1950년 6·25전쟁 때 논문집 『교양의 문학』 원고를 출판사에 남겨놓고 남북¹³⁾되어 지금까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목포에서 출생하기만 했을 뿐 목포문단과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목포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이나 문학 작품도 남기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목포 출신 문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출생지가 목포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그의 문학적 업적은 목포 문학의 유산으로 포함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애초 그의 문학적 관심은 수필 창작이 아니라 연극 활동을 위한 해외문학 작품 번역에 있었다. 1926년 일본 유학 시절 손우성, 이하운, 정인섭 등과 ‘해외문학연구회’를 결성하여 1927년 귀국 후 『해외문학』 창간에 참여하였으며, 카프의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대결하여 해외문학 소개에 진력하였고, 평론 「표현주의 문학론」을 비롯하여 독일문학을 번역·소개하고, 서향석, 이현구, 유치진 등과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는 1920년대에 문단 활동을 시작한 문인으로 보고 있다.

11) 그녀가 이러한 작품을 쓰게 된 데에는 오빠 박제민과 남편 김국진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12)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문화』9-1, 역사문화학회, 2006, 91~122쪽 참조.

13) 한동안 문학계에서 남북 문학가와 월북 문학가를 분리하여 명단을 정리 발표한 사실이 있다. 왜냐하면 자진 월북이나, 끌려간 월북이나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진섭은 엄연한 남북 문학가의 한 사람이다. 1986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된 권영민의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10쪽과 22쪽에 따르면, 조국의 광복 후에 6·25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 시기에, 김진섭은 좌익 문학인 중심의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에 대응하여 1945년 9월 8일에 결성된 조선문화협회의 발족에 관여하고, 나아가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항하면서 1946년 3월 13일에 결성된 전조선문필가협회 발족에도 간여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남북되고 말았으리라고 전해온다(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0~22쪽).

3) 주요 문학 활동¹⁴⁾

(1) 한시 명맥 이은 전국 유일의 시사 ‘유산시사’



그림 1 유산시사가 모태가 된 목포시사

유산시사는 목포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적 결사로 『유산사안(儒山社案)』에 따르면, 1920년 4월 29일에 창립하였는데 김성규, 최방현, 김현서 등의 목포 유림들과 목포와의 왕래가 많았던 진도, 강진 지역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한다. 당시 시사장은 초정 김성규(김우진의 아버지)가 맡았고 창립회원으로는 무정 정만조¹⁵⁾가 참여하였다. 이후 1933년에 ‘유산정(儒山亭)’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활동하다가 1961년에 보인시사(輔仁詩社)라는 또 다른 문학결사와 통합하여 현재의 목포시사(木浦詩社)로 새롭게 발족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⁶⁾ 한시의 명맥을 이어온 전국 유일의 시사(詩社)¹⁷⁾로서 지금도 매년 봄과 가을에 시회 및 한시백일장을 열어오고 있으며, 개항 이전부터

14) 해당 시기에 목포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나 문학 활동을 다루었다.

15) 유산시사의 결성·건립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정만조다. 그는 진도로 유배 중에 자주 목포를 오가며 후학들을 가르쳤다. 의재(毅齋)와 남농(南農)의 호도 정만조가 지어졌고, 유달산의 한자 표기도 ‘鑰達山’에서 ‘儒達山’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렇듯 그는 유산시사를 통해 퇴폐한 학문의 기풍을 바로잡아 지방 문화에 많은 공적을 남긴 한말의 대학자였지만, 1935년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심전개발(心田開發)운동에 동조하는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친일활동으로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Ⅳ-16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73~88쪽 참조).

16) 구한말부터 문학적 결사의 성격으로 목포 지역 문인들이 모여 만들어졌다고 전하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목포시, 『목포의 역사와 이야기 100선』, 99~101쪽 참조).

17) ‘시사’란 문사들이 서로 시문을 독려하고 자연과 시를 노래했던 풍류의 모임을 뜻한다. 목포시사는 시인목객들의 단순한 모임을 넘어 한말에 망국의 한과 우국충정을 토로하던 유림의 문학결사단체였다.

있었던 목포 문학의 유일한 뿌리이다. 그러나 이는 목포근대문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976년 전라남도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규모가 앞면 4칸·옆면 1칸 반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안에는 정만조의 문집을 비롯한 한말의 전적, 한시 현판, 한시백일장 결과물 등을 소장하고 있다.

(2) 목포 최초의 문예 관련 단체 ‘목포사론협회’

목포사론협회는 목포 유지들의 발기로 1923년 6월 19일 발기 총회와 6월 25일 제1회 임시 총회를 거쳐 만들어진 목포 최초의 문예 관련 단체이다. 당시 박양규, 김필호, 김희영, 권녕례, 김동원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채택한 강령을 보면, “일반의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필요한 연극 또는 제반 강연 및 토론회 개최, 현대에 적의한 문예현상회 또는 법학 및 속기술 연구 강습회의 수시 개최, 문화에 필요한 기사를 신문 잡지 등에 통신하여 일반 사회에 소개.”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강령대로라면 당시 목포 문단에 끼친 영향도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상세한 활동 상황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3) 목포 지역 최초의 문학 동인회 ‘소시에 마이(Société Mai)’

‘소시에 마이(5월회)’는 김우진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목포 지역 최초의 문학 동인회이다. 김우진은 1915년부터 근대자유시를 창작했으나 공식적인 문예지나 신문에 일절 발표한 적이 없다가 1925년 5월 귀국 직후 이를 결성하여 동인지에 「아버지께」 등 수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김우진의 사망과 함께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활동사항이나 참여 문인 명단은 동인지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4) 목포청년운동 주도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목포지부’

1928년 12월 목포청년동맹회관(현 남교소극장)에서 설립된 무산 계급 문예 관련 단체이다. 1925년 8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이 염군사계와 파스큐라계가 합동하여 결성된 지 2년, 1927년 9월 김철진 등 순수 불세비키적 의식을 가진 자만을 중심으로 제1차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지 1년 뒤에 목포지부가 설립되었다. 원래 설립 대회는 8개월 전인 4월 1일 개최코자 했으나 소위 목포 운동 분규사건으로 인하여 카프맹원들의 검거와 투옥이 있었던 터라 이들의 만기 출옥에 따라 12월 1일로 미루어졌다. 설립 대회에서 선임된 진행 위원은 정학현, 정적파, 송호, 박응신, 박용운, 김상만, 오성덕, 임태호 등이다.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목포지부는 1920년대 목포의 청년운동을 주도했는데, 박화성의 소설 「혈어진 청년회관」은 이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축기(1930년대)

1) 개관

일제의 사상 탄압이 극심했던 1930년대 초·중반에서 황국신민화정책이 자행되었던 193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 문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과 맞물려 이 시기의 목포 문학도 우리문학 전체의 흐름과 맥을 함께 했다. 목포 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김우진의 사망에 따른 부재는 1920년대에 싹이 텃던 문학이 1930년대로 발전적으로 이어지는데 다소 결림돌로 작용했으며, 그런 속에서도 김철진(1900~1971)¹⁸⁾ 이 발간한 『호남평론』을 중심으로 펼쳐진 문학 작품 발표, 출향 문인으로서 박화성과 김진섭의 활발한 작품 활동은 이 시기 목포 문학의 핵심적 내용이자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930년대는 조선인에 대한 사상 탄압으로 신간회 해체(1932년)를 비롯한 카프 소속 문인들의 대대적인 검거(1931, 1934)와 해산(1935)으로 문학 운동의 조직적인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1920년대 중·후반 활발하게 움직였던 목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운동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목포지부 활동도 이때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930년대 초·중반에는 신문이나 잡지의 수가 늘어나 작품 발표의 장이 확대되기도 했다. 『목포평론』·『전남평론』과 종합시사문예지 『호남평론』의 속간이 그것이다. 특히 『호남평론』은 1930년대 목포 일대 문인들의 유일한 작품 발표의 장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는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조선의 병참 기지화로 경제적 수탈이 가중되었는데, 오히려 목포는 나주평야의 쌀, 면화 등을 일본으로 실어가는 수탈 항구로서 부역의 확장 등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할 만큼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다.¹⁹⁾ 1930년대 말에는 우리말과 글의 사용 금지,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탄압, 창씨개명 등 황국신민화정책이 노골화됨으로써 문학 활동도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는 우리문단에서 여성작가들의 출현으로 여성문학의 위상이 정립된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 출향문인으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한국여성소설의 중심에 우뚝 섰던 문인이 박화성이다. 그리고 한국수필문학의 개척자로서 김진섭이 연극 활동을 접고 본격적으로 수필을 발표한 것도

18) 김성규(金性圭)의 둘째아들이자 김우진의 동생이다. 일본 구마모토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동지사대 정경과를 중퇴했다.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독립운동을, 1930년대에는 주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1927년 신간회 목포지회 상무간사를 지냈고, 같은 해 조선공산당 목포지부 책임을 맡았다. 1935년 『호남평론』 발간을 주도했고, 전남도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1951년에는 목포상과대학(현 전남대 상대) 2대 학장을 지냈다. 한편, 그는 1937년 전 12권 6책으로 이루어진 아버지 초정 김성규의 시문집 『초정집(草亭集)』을 펴내기도 했다.

19) 1932년 목포는 무안군 일부 지역 편입으로 면적이 늘어나 조선 6대 도시·3대 항구로 성장하였다. 당시 목포의 인구증가율은 11.20%로 전국 최고였으며, 1935년 기준 인구는 6만 명에 달했다(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 출판부, 2004, 19쪽).

이때이다. 그러나 박화성도 1930년대 말의 열악한 문단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방 때까지 절필하게 된다.

2) 주요 문인 활동

(1) 박화성 - 목포권을 배경으로 한 소설 집중 발표

목포 문단에서 1920년대가 김우진의 시대였다면, 1930년대는 박화성의 시대였다. 그녀는 목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집중적으로 발표함으로써 193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여성소설의 대모로 떠올랐다. 그만큼 1930년대는 그녀의 이름을 목포 문단은 물론 한국 문단에 확실히 각인시킨 시기였다.

박화성은 1925년에 등단하였지만 이후 학업과 결혼 등²⁰⁾으로 인해 작품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1932년 단편 「하수도 공사」가 이광수의 추천으로 『동광』에 다시 추천되고,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옛 단지」가 당선되었으며, 첫 장편소설 『백화(百花)』를 『동아일보』(1932. 06. 08.~11. 22.)에 연재함으로써 1930년대를 자신의 시대로 화려하게 열어젖혔다.



그림 2 1920~1930년대 목포의 민족운동과 청년운동의 본산이었던 남교소극장. 단편소설 「혈어진 청년회관」의 무대이기도 하다.

20) 등단 이후 박화성은 1925년 신학제에 따라 숙명여고보 4학년에 편입하여 1926년 졸업했다. 같은 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여자대학교 영문학부에 입학하여 1928년 3학년에 진급만 하고 귀국하여 김국진과 결혼한 뒤, 1929년 남편과 함께 다시 도일하여 첫째 승해를 출산하고, 1930년 대학 3학년을 수료한 다음 임신으로 인해 다시 귀국하였다. 1931년 목포에서 장남 승산을 출산한 후 남편 김국진이 반전데이 배라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언도받고 복역하는 동안 옥바라지에 전념했다.

1933년 「혈어진 청년회관」을 『조선청년』 창간호에 발표하려 하였으나 총독부의 검열로 전문 삭제당하고 말았다. 그 후 『조선청년』 발행인인 팔봉 김기진이 은밀히 복사해 두었다가 광복이 되자 작자인 본인에게 돌려주어 1945년 『예술문화』 4집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²¹⁾ 이 작품의 ‘청년회관’이란 바로 목포의 민족 운동과 청년 운동의 보금자리였던 지금의 남교소극장이다. 같은 해에 단편 「두 승객과 가방」, 「누구가 옳은가?」, 장편 『젊은 어머니』, 『비탈』을 발표했다. 1934년에는 단편 「논 갈 때」, 「홍수전후」와 장편 『신혼여행』, 『눈오든 그 밤』을 발표했으며, 1935년에는 단편 「이발사」, 「중국어」²²⁾, 「한귀(旱鬼)」와 장편 『북국의 여명』을, 1936년에는 단편 「불가사리」, 「고향 없는 사람들」, 「춘소(春宵)」, 「온천장의 봄」, 「시드론 월계화」를, 1937년엔 단편 「호박」을 발표하고 나서 해방 때까지 절필에 들어간다.²³⁾ 일제의 우리말 사용 금지와 극심해진 검열 그리고 1938년 천독근과 재혼에 따른 시간의 부족 때문이었다.²⁴⁾

1930년대까지 발표한 박화성의 소설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민이나 노동자의 궁핍한 삶과 지배 계급의 기생적인 생산 양식의 모순을 파헤치는 세계를 보여준다. 그녀가 이러한 작품을 쓰게 된 데에는 사회주의운동을 벌였던 오빠 박제민과 남편 김국진 등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게다가 「추석전야」, 「하수도 공사」, 「혈어진 청년회관」, 「신혼여행」, 「춘소」 등은 목포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며, 「한귀」, 「고향 없는 사람들」, 「홍수전후」 등은 목포 인근 영산강 일대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다. 그녀가 가장 목포 출신다운 문인으로 꼽히는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초기문학을 대표하는 실화소설로 볼 수 있는 「하수도공사」는 1931년 3월 29일에 일어난 목포의 하수도공사장 노동사건²⁵⁾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당시 일제가 하수도공사를 실업자 구제를 명분으로 사업을 벌였으나 결국은 청부업자나 자본주의 지주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비화를 그린 역작으로 평가된다.²⁶⁾ 그러나 이 작품은 반항의 형식이 소극적·간접적이어서 프롤레타리아 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그녀는 ‘동반자 작가’에 속했다.

21) 이생연, 「근대 목포의 문학」,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303쪽.

22) 이는 『호남평론』(1935. 11.)에 발표한 그녀의 유일한 단편소설이다.

23) 「박화성」, 『한국여성문인사전』, 태학사, 2006 참조.

24) 박화성이 목포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기간은 1931년 김국진과의 장남 김승산을 출산하면서부터 1962년까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천독근과 재혼하기 위해 낙향한 1938년부터 서울로 이주해간 1962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집필실 제한루에 머물면서 목포문인들과 깊이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25) 하수도 공사는 죽교동 뒷개-북교초등학교-청년회관-불종대-수문통 거리-아리랑 고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실업자 구제를 위한 명목으로 벌어진 복지 사업이었다.

26) 그러나 이 작품은 반항의 형식이 소극적·간접적이어서 프롤레타리아 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그녀는 ‘동반자 작가’에 속했다.

(2) 김진섭 - 수필가로서 본격적인 활동 시작

1920년대 연극 활동에 전념했던 김진섭이 정작 수필가로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친 것은 1930년 『중외일보』에 최초의 수필 「인간문학론」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비록 목포 문단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지만, 「창(窓)」(1934), 「우송(雨頌)」(1935), 「권태예찬」·「주찬(酒讚)」(1937), 「백설부(白雪賦)」·「매화찬(梅花讚)」(1939) 등 생활의 예지와 인생의 사색·철학을 담은 중후한 작품들이 이 시기에 발표된 수필들이다. 이때부터 약 20년 동안 200여 편에 달하는 수필과 평론을 남긴 그는 1947년 첫 수필집 『인생예찬』과 1948년 수필가로서 위치를 굳힌 『생활인의 철학』, 1950년 『교양의 문』을 발간함으로써 한국수필문학의 새 영역을 개척하였다.

3) 주요 문학 활동

(1) 시사문예종합지 『호남평론』의 속간

1935년 4월 20일 목포시 죽동 49번지에서 1930년대 목포 문인들의 작품발표를 도맡았던 시사문예종합지 월간 『호남평론』이 김우진의 동생 김철진과 나만성의 주도로 창간되었다. 원래 시사종합지인 이 잡지가 문예란의 비중을 크게 둔 것은 김철진이 1926년 세상을 떠난 형 김우진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잡지는 1930년대 목포 문학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호남평론』은 창간이라기보다 속간에 가까웠다. 그 전에 발간해오다 중단되었던 『전남평론』과 『목포평론』을 이름만 바꿔 계속 발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1년 3개월 동안 휴간시켜 온 「전남평론」(1934. 01.)을 지금에 다시 계속한다고 속간이라 하기는 정말 면목이 없는 소리이다.”라고 밝힌 창간호 「편집여언」을 보면 드러난다. 그러니까 목포에는 『호남평론』 발간 1년 3개월 전인 1934년 1월까지 『전남평론』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목포평론』이 있었던 것이다.²⁷⁾ 그러나 이 두 잡지가 언제부터 발간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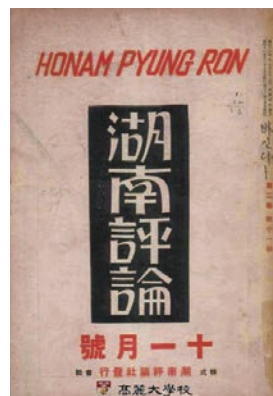


그림 3 1930년대 시사문예종합지 『호남평론』

27) 이처럼 1930년대 초부터 목포에 훌륭한 잡지가 있었던 사실은 『호남평론』 1937년 7월호에 1937년 6월 8일 나만성 선생 1주기 애도기사 중 “나만성 선생은 호남평론 창립자로서 목포평론·전남평론을 창간했다. 혼자서 원고 쓰고 혼자서 기사 재료를 수집하고 혼자서 원고를 얻으러 다니고 혼자서 유지비를 구해들이고 심지어 사내 소제까지 도맡아 했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창간 당시 사장 김성호, 주간 김철진, 편집인 겸 발행인 나만성으로 주요 진용을 갖춘 『호남평론』은 발행처가 경성 숭4동 206번지로서 경성총지사 사무실을 겸하고 있었으며, 그 후 진도지사, 장성지사 등 지사 확충을 꾀하면서 1936년 1월 1일 자본금 1만원으로 주식회사 호남평론사를 창립했다. 곧 이어 사장 김철진, 전무 정찬민, 상무 나만성으로 운영진을 개편하고, 편집국원도 주간 김철진, 편집장 나만성²⁸⁾, 지방부장 김상수, 기자 임병남, 동부특파원 김우성 등으로 재구성했다. 1937년 3월에는 지사를 광주, 영광, 여수, 나주, 영암, 완도까지 확충하였다. 1937년 8월호 이후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일제의 언론 탄압으로 인해 폐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호남평론』의 존속 기간은 2년 4개월이다.

전술한 바대로,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호남평론』이 문예란을 통해 초창기 목포 문학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다. 당시 목포를 대표하는 여류작가였던 박화성을 비롯하여 이무영, 방인근과 같은 유명문인들과 목포권의 문학 동호인들이 이 잡지를 통해 왕성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었다. 2년 4개월 동안 『호남평론』에 발표된 장르별 작가 수를 보면 시 분야에서 53명, 소설 분야에서 17명, 수필 분야에서 22명, 시조(민요, 한시 포함) 분야에서 14명, 희곡 분야에서 10명, 비평 분야에서 3명, 아동문학 분야에서 2명 등이다.

『호남평론』에 나타난 특징을 몇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와 수필 등 여러 장르를 함께 쓰는 작가가 상당수였으며, 시대적 상황 탓인지 가명이나 필명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이근화의 경우 북초(北草)라는 필명과 함께 시와 시조, 수필 분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나천수는 시와 수필에서, 박덕상은 시와 소설에서, 최승년은 시, 수필, 소설에서, 오성덕은 시와 수필에서, 나만성은 소설과 희곡에서, 오병남은 수필과 동요에서, 무두인은 시와 희곡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었다. 둘째, 시의 경우 로컬리티(향토성)를 드러내는 소재가 많았다. 이를테면, 「목포찬가」, 「목포 해안의 아침」, 「황혼의 용당리」, 「영산강 타령」, 「달성사 종소리」, 「포구의 황혼」 등이다. 셋째, 소설 명칭이 다양했다. 단편이나 중편소설이라는 명칭은 원고량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라 치더라도 애정소설, 대중소설, 가정소설, 탐정소설 등 작품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심지어 변안소설도 등장하고 있다. 희곡 또한 1막 희극, 라디오 드라마, 발성영화 각본 등이었다. 넷째, 비평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호남평론』에 본격적인 비평이 등장한 것은 1936년 11월호부터이다.²⁹⁾ 장효근의 「문예와 인생」, 이석의 「학예 문화 옹호의 자유사상론」, 김인화의 「문학의 감동성」,

28) 그러나 편집장 나만성은 난치병으로 동년 5월 사임한 후 6월 8일 7시에 별세했다.

29) 이들 문인들은 목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지만, 목포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호남평론」은 목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전라도의 여러 지역에 지사를 둔 호남 전체를 포괄하는 시사종합문예지였기 때문이다.

박병선의 「시인 제씨에게 일언, 대중이 요구하는 작품을!」, 김인달의 「연극의 민중예술성」, 남촌의 「문학방법론」 정도였다.

4) 활동 문인

『호남평론』에 2회 이상 작품을 발표한 1930년대 문인 명단을 장르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공식적인 등단 절차를 거친 문인이 아니라 문학 동호인에 가까웠으며, 작품 수준 또한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20년대 김우진처럼 1930년대 목포 문단에서 공식적인 등단 과정을 거쳐 전국적인 문인으로 활동한 이는 박화성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지역 문인이 중앙에서 발간하는 문예지나 신문을 통해 등단하기가 그만큼 어려웠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① 시: 이근화(필명 이북초), 무두인(無頭人), 나천수, 김중복, 최승년, 이중호, 노변, 천남선, 동인(同人), 오성덕, 박찬일. ② 소설: 최춘열(필명 光山新月), 박덕상, 채규호, 나만성, 이종명, 문이석, 남경전, 윤준희. ③ 수필: 나천수, 이근화, 박덕상, 김철진, 최승년, 오성덕, 향인, DK생, 이일공. ④ 희곡: 서광제, 나만성. ⑤ 시조: 이근화. ⑥ 동요: 오병남.

3. 암흑기(1940년대)

1) 개관

한국문학사에서 1940년대를 문화의 암흑기로 보는 것처럼 목포 문학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해방 직전인 1944년까지 발표된 작품이나 문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물은 전무하다. 그러나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린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절필했던 박화성이 목포 세한루에 상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재개하고, 같은 해 문예지 『예술문화』와 『보국문학』이 창간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목포는 문학 활동을 펼치기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호남 서남부의 중심 도시 특히 영산강 유역을 따라 전개되는 나주평야의 쌀과 면화를 수집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일본의 공업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점 항구도시인 목포에 있어서 해방은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 네트워크의 단절을 의미하였다. 그만큼 목포와 인

근 지역은 새로운 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할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³⁰⁾

해방 이후 목포사회도 상당한 격동을 겪었다. 우선 인구 면에서 보면 전체인구 약 8만 명 가운데 약 1만 명을 차지하던 일본인들이 해방 후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반면 일본·중국·남양군도 등지에 징병·징용으로 끌려갔던 청장년들이 귀국하였고, 만주로 농업이민을 갔다가 귀향한 이들도 수만 명에 달하였다. 아울러 북한에서 월남한 이들도 1천여 명에 달하였다. 또 해방 이후 빈곤한 인근 농촌과 도서 지방에서 목포로 이동한 인구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목포의 인구는 1949년 9월 기준 약 12만 명에 달하였다. 이는 해방 전에 비하여 약 4만 명 증가한 것이다.³¹⁾

2) 주요 문인 활동

(1) 박화성 - 세한루에서 젊은 문학도 양성

1937년 이후 절필에 들어갔던 박화성은 광복이 되자 1946년 『민성』에 단편 「봄 안개」를 발표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재개하였다. 1947년엔 조선문학가동맹 목포지부장에 피선되었으며, 첫 단편집 『고향 없는 사람들』 출판 기념회를 당시 요정으로 유명했던 ‘국취관’에서 성대하게 열었다. 목포에서 처음 열리는 출판 기념회였다. 이를 계기로 그녀의 집필실인 용당동 ‘세한루’³²⁾는 목포 문학인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젊은 문학도를 양성하는 교습소 역할을 하였다.³³⁾

1948년엔 단편 「광풍 속에서」를 발표했고, 1955~1956년 장편 『고개를 넘으면』, 1956~1957년 장편 『사랑』, 1957~1958년 장편 『벼랑에 피는 꽃』, 1958~1959년 장편 『바람뉘』 등 신문연재소설을 연속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시기(후기) 그녀의 작품 세계는 광복 이전(전기)의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다. 주로 서민들의 세대 의식이나 남녀 간의 애정 문제 등을 다룬 신문 연재소설에 집중했던 그녀의 작품 세계는 이미 대중성으로 기울어 있었다.

30) 정근식, 「개관 ·현대의 목포」,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31) 같은 글.

32) 현주소가 전남 목포시 동목포길 49번지인 이곳은 도로가 놓이면서 헐렸는데, 목포시가 2013년 10월 17일 ‘세한루 소공원’으로 조성·복원했다. 공원 안에는 세한루 정자, 박화성 흉상, 문학비 등이 세워져 있다. 세한루 안내 비문에는 이곳에서 박화성이 1938년부터 1962년까지 집필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서울 인의동으로 이주한 1957년까지가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이 무렵 문학동우회를 결성하여 『밀물』이라는 동인지까지 발간하려고 했지만, 문인들이 불뽕이 흩어져 끝내 못 내고 말았다고 한다. 당시 이곳을 드나들던 사람은 수필가 조희관, 시를 쓰는 습작생 심인섭·박정운·전승묵·정기영, 소설 습작생 박상권·정철·백두성, 평론 지망생 이가형·차재석, 희곡 지망생 박경창, 그리고 연희전문에 다니는 차범석, 목포고 재학생 정규남 등이었다고 한다(정태영, 『박화성과 이난영 그들의 사랑과 이즘』, 뉴스투데이, 2009, 87쪽 참조).

(2) 이가형 - 한국 추리문학의 기수

이가형(李佳炯, 1921~2001)은 전남 목포시 죽동에서 태어났다. 1942년 일본 구마모토[熊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문학부로 진학했다. 1944년 대학 재학 중 일제의 학도병으로 징집돼 전쟁에 나갔고, 1945년 연합군 포로로 싱가포르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했다. 1946년 목포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무렵 목포 문단에서 활동하다가 1953년부터 전남대학교의 전임강사가 되면서 광주로 이주했다. 그 이후 상경하여 중앙대학교와 국민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를 지냈다. 1979년~1990년 추리작가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한국 추리문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1949년 『호남공론』에 소설 「마지막 밤의 대화」를 발표하면서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일제의 학도병 징집과 포로수용소의 경험을 토대로 쓴 장편 자전소설 『분노의 강, 나의 버마전쟁』을 한국어와 일본어판으로 동시 출간했다. 그 밖에 단편소설로 「귀향로」(1951), 「36계」(1951) 등이 있는데, 모두 목포에 살 때 발표한 작품이다. 더불어 영미문학의 번역 소개 작업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72년 번역문학상과 1978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했다.

3) 주요 문학 활동

(1) 해방 직후 『예술문화』·『보국문학』 발간

『예술문화』는 1945년 해방 직후 1930년대 『호남평론』에 작품을 발표했던 동경 유학생 홍순태, 박문석, 박경창, 장병준, 백두성 등이 문화 예술 운동 재개의 중요성을 공감한 목포의 유지 차남진, 천독근, 김철진 등의 도움을 받아 발간한 문예 종합지이다. 위축기와 암흑기를 보내고 최초로 발간한 잡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33년 일제의 검열에 걸려 발표하지 못했던 박화성의 소설 「헐어진 청년회관」이 4호에 다시 실렸으며, 당시 목포에서 열심히 연극 활동을 하던 박경창이 이를 통해 등단하기도 했다. 이 예술 종합지는 해방 후 목포의 문학적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 이동주, 이화삼, 엄심호, 정철, 오억, 심인섭, 장병준, 박기동, 강지순, 김석주, 이해동, 조희관 등이 필진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발족한 1947년 봄에 『예술문화』의 발행처를 광주로 옮겨 제2권 5호까지 냈다. 『예술문화』는 전남에서는 가장 오래된 문예지로 평가받고 있다.³⁴⁾

『보국문학』은 1946년 조희관, 차재석, 박기동, 박진철 등이 모여 발간한 문예지이다. 주로 박화성, 이동주, 이가형, 박기동, 나천수, 박종옥, 오성덕, 심인섭, 정철, 홍순태, 박문석, 박경창, 장병준, 백두성, 서광호, 김일로, 최기영, 심응섭, 박동화, 강원순, 이영해, 문일석 등이 이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였다.

34) 「전남의 수필문학」, 목포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카페 참조.

4) 활동 문인

박화성, 조희관, 홍순태, 박문석, 박경창, 장병준, 백두성, 차재석, 박기동, 박진철, 이동주, 이가형, 이화삼, 엄심호, 정철, 오억, 박기동, 강지순, 김석주, 이해동, 나천수, 박종옥, 오성덕, 심인섭, 서광호, 김일로, 최기영, 심응섭, 박동화, 강원순, 이영해, 문일석 등.³⁵⁾

4. 회복기(1950년대)

1) 개관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1950년대는 전쟁의 참화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암흑기를 견딘 목포 문학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자생적인 뿌리를 내린 회복기 혹은 재생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51년 9·28 서울수복이 되자 해군 목포경비부가 정훈사업의 일환으로 월간지 『갈매기』와 주간지 『전우』를 창간하여 문인들에게 작품 발표의 장을 마련해주었다. 이를 발판으로 1950년대부터 잠룡처럼 숨어 있던 목포의 젊은 문학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문단에 대거 진출하게 된다. 이는 당시 한국문단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다 비극적 시대상황까지 맞물려 이렇다 할 문학적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양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문학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응전력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혼란과 비극으로 점철된 이 시기에 거둔 목포 문학의 성과는 매우 이색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유입된 피난 문인들의 목포 문단 합류와 문학적 중심축 역할을 했던 조희관·차재석·박화성 등의 헌신과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지방도시와 차원을 달리하는 출판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것도 한몫 했다고 할 수 있다.³⁶⁾ 이러한 요인들은 목포 문학이 1960년대 들어 전성기를 구가하는 밑바탕이 된다.

게다가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엔 목포가 한반도의 꼬트머리에 위치해 있어서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던지 광주, 영광, 해남, 진도 등 인근 지역과 이북에서 피난 온 문인들이 대거 목포로 유입되었는데, 바로 이들이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목포 문학을 회복·재생시키고 살찌우는 데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목포 문단은

35) 이들 중 공식적으로 등단 절차를 거친 문인은 박화성, 이동주, 박경창, 이가형이다.

36) 김선태, 「목포권 문학의 어제와 오늘-목포 문학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37, 목포대 도서관연구소, 2011, 32~34쪽 참조.

피난 문인들이 합세하여 형성한 문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목포는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단적인 예로 목포항의 하역 능력은 해방 직후 30만 톤에서 한국전쟁 직후 15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1960년에 이르러서야 해방 직후의 하역 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³⁷⁾

2) 주요 문인 활동

(1) 조희관 -전후 황폐한 목포 문단의 새바람

영광의 교육자이자 언론인인 조희관(曹喜灌, 1905~1958)이 1946년 목포상업학교 교감으로 부임하면서 위축되어 있던 목포의 예술문화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해방 직후에 『예술문화』와 『보국문학』의 발간에 참여했으며, 6·25전쟁 직후엔 항도여중 교장직을 그만두고 차재석과 함께 항도출판사 사장을 맡아 당시 목포의 출판 문화를 주도했고, 문예지 『전우』, 『갈매기』 등의 주간을 맡아 목포 문인들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였다. 1956년에는 목포문화협회(현 목포예총)를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박화성의 소설집 『고개를 넘으면』의 출판기념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는 해방 공간과 전후 황폐한 목포의 예술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산파역을 맡았다.

목포로 이주하면서부터 수필을 쓰기 시작한 그는 등단 과정 없이 문학에 입문한 자족적인 향토문인의 전형이었다. 살아생전 『철없는 사람』, 『다도해의 달』, 『새날이 올 때』 같은 수필집을 출간했다. 그의 수필의 특징은 한글과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유려한 문장에 있다. 영광에서부터 각별한 문우였던 박화성에 따르면 그는 ‘주옥같은 문장을 누에가 비단실 토해내듯이 뱉어내던 뛰어난 수필가’³⁸⁾였다. 김지하의 『모로 누운 돌부처』에서 “우리의 토박이말과 미묘한 전라도 사투리의 매력을 처음 깨달은 것도 조희관 선생의 그 무렵의 수필집 『철없는 사람』에서였다.”³⁹⁾고 술회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가난 때문에 일찍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그는 ‘불행한 문학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그는 한글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지닌 교육가였다.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항도여중 교장으로 전임하면서 빛났다. 부임과 동시에 한자로 된 학교 간판을 한글로 고치고 “한 송이 들꽃을 보라 / 남을 시새워 하지 아니하고 / 힘껏 제 빛을 나타내나니.”라는 교훈을 손수 지어 걸은 일은 아직도 목

37) 목포개항백년사편찬위원회,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참조.

38) 『동아일보』 1981. 01. 05.~02. 28. 박화성, 「나의 교육록」.

39) 김지하, 『모로 누운 돌부처』, 도서출판 나남, 1992.

포 지역 교육계에서 일화로 회자되고 있다. 목포여고, 목포유달중, 목포해양고등학교(현 목포해양대학교) 등 교가를 한글로 작사했으며, 학생들에게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특이함을 일상용어에서 찾아내고 어원을 밝혀 나가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부용산 오리길」을 작사한 박기동과 작곡한 안성현 같은 유능한 예술인을 길러내는 데도 힘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1958년 53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떴다. 전라남도문화상과 제1회 목포시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1983년 작고한 그를 기리는 ‘소청문학상’이 제정됐다.

(2) 차범석 -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완성자

차범석(車凡錫, 1924~2006)은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목포로 피난온 뒤 목포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밀주」가 가작,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귀향」이 당선되어 극작가로 등단했다.⁴⁰⁾ 목포 문단에선 김우진 이후 두 번째 극작가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상경하여 활동함으로써 목포 문단과는 그리 오랜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대에는 6·25전쟁을 겪은 전후문학 세대로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의식이 강한 작품을 주로 발표했다. 특히 전쟁의 상처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상을 그린 「불모지」(1957)와 이념의 허구성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산불」(1962)은 6·25의 비극을 부각시키고 반전의식을 일깨운 전후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대표 희곡집으로 『겹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1961), 『대리인』(1969), 『환상여행』(1975), 『학이여 사랑일레라』(1982), 『식민지의 아침』(1991), 『통곡의 땅』(2000), 『옥단어』 등과 연극이론서 『동시대의 연극인식』(1987)이 있다. 이 밖에 수필집 『거부하는 몸짓으로 사랑했노라』(1984), 『예술가의 삶』(1993), 『목포항 완행열차의 추억』(1994)과 자서전 『떠도는 산하』(1998)가 있다. 이들 중 『학이여 사랑일레라』와 『옥단어』는 목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특히 『옥단어』는 일제 말에서 해방 정국에 이르는 시기에 목포의 4대 명물⁴¹⁾ 중 하나였던 ‘옥단’을 중심으로 급박한 근대사를 살아갔던 민초들의 애환을 소개한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3) 최일수 - 민족문학론 펼친 문학평론가

최일수(崔一秀, 1924~1995)는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상업학교를 중퇴하고 전문학교 입학 자격 검

40) 그보다 앞서 차범석은 1951년 1월 27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목포지부’가 발족하자 목포문화협회 주최 예술제에서 2막극 「별은 밤마다」를 상연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녀작을 발표하기도 했다.

41) ① 역전의 멜라콩, ② 평화극장 외팔이, ③ 대성동 쥐약장수, ④ 물장수 옥단이를 목포의 4대 명물이라고 한다.

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줄곧 목포에서 문학 습작에 전념하다가 상경하여 국도신문사·조선일보사·서울신문사 등에서 기자 활동을 펼친 문학 평론가이자 언론인이다. 목포 출신으로선 최초의 평론가이지만 1950년대 중반 이후 줄곧 서울에서 활동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평론 부문에 「현대문학과 민족의식」이 당선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평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분단의 문학」(1968), 「전통주의와 세계주의」(1969), 「민족문학과 통일」(1972), 「식민지시대의 민족문학」(1981), 「민족문학론」(1981), 「민족문학과 상황의식」(1985) 등 문학평론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를 통하여 민족문학의 원론적 모색뿐 아니라 과거 우리 문학의 민족문학적 전통에 대한 탐구, 새로운 민족문학의 모색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었다.

1980년 이후 한국문학 평론가협회 회장(1980~1984)을 역임하였고, 타계하기까지 예술평론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56년 제12회 현대문학상과 1993년 자유문학상을 수상하였다.⁴²⁾

(4) 차재석 - 목포예총의 터줏대감

차재석(車載錫, 1926~1983)은 조희관과 함께 1950~1960년대 목포 문단을 주도적으로 이끈 문인이다. 그는 「삼학도 가는 길」, 「악인의 매력」 등을 쓴 수필가이지만, 문학 창작보다는 평생을 목포의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귀찮은 일을 도맡아하며, 문학인들을 지원하는 후견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는 목포의 예술인들은 서슴없이 ‘목포예총의 터줏대감’으로 부른다. 따라서 그의 문단 활동은 ‘예향 목포의 산파’였던 선배 수필가 조희관과 겹친다. 그만큼 그들은 명콤비였다. 소설가 백두성은 ‘소청 조희관 선생과 다목동 차재석 선생이 서로 만났기에 더욱 목포 문학예술에 빛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술회하였다. 그는 6·25 직후 형 차범석과 함께 서울에서 귀향하여 향도출판사를 차리고, 조희관을 사장으로 모시면서 자신은 편집장을 맡았다. 목포여중 앞에 있었던 향도출판사는 시설은 비록 허름하였지만 목포문화 예술의 산실이였다. 목포의 모든 문예지와 단행본을 도맡아 출판했다. 당시 대다수 문학 지망생들이 이곳을 거쳐나갔다. 월간지 『갈매기』, 주간지 『전우』 등을 통해 목포문인들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문예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1956년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 서정주, 이동주 등과 함께 시 전문 문예지 『시정신』 창간을 주도한 것은 그의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1958년에는 남농 허건, 소청 조희관과 함께 목포문화협회(현 목포예총) 창립을 주도했으며, 1960년 『목포 문학』(현 목포문인협회 기관지) 창간을 발간·주도했고, 1969년 제3대 한국예총 목포지부장을 역임했다.

42) 한국학중앙연구원, 「최일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1.

(5) 권일송 - 1950~1960년대 목포 시단 주도

권일송(權逸松, 1933~1995)은 전라북도 순창에서 출생하여 광주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56년 목포영흥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1950~1960년대 목포 시단을 주도하였다. 영흥고에 재직 중이던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불면의 흥장」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강변 이야기」가 동시에 당선되어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1959년 목포문태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목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예반을 결성하여 목포 문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965년 『주간 한국』에 장편 서사시 「미처 못다 부른 노래」를 25회 연재하기도 했다. 1970년 목포 생활을 마무리하는 ‘유달산이여 안녕’이라는 주제로 고별 시화전을 개최하고 1970년 10월 서울로 상경하였다. 황명(黃命), 윤삼하(尹三夏), 강인섭(姜仁燮), 박봉우(朴鳳宇) 등 신춘문예 출신 시인들과 ‘신춘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1982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1994년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장을 지냈다.

1966년에 인구에 회자됐던 첫 시집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도시의 화전민』(1969), 『바다의 여자』(1982), 『바람과 눈물 사이』(1987), 『비비추의 사랑』(1988) 등을 펴냈다. 1983년 제1회 초청문학상, 1985년 제8회 현대시인상을 수상하였다.

(6) 천승세 - 한국의 대표적 휴머니즘 소설가

천승세(千承世, 1939~)는 1939년 목포 용당동에서 박화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56년 목포 고등학교를 거쳐 1961년 성균관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점례와 소」가 당선되었고,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물꼬』와 국립극장 현상문예에 희곡 『만선』이 각각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형인 천승준은 문학 평론가이고, 동생인 천승걸은 전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서 3형제가 모두 문학을 전공했다. 성균관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신태양사 기자, 문화방송 전속작가, 한국일보 기자, 제일문화회업 상임작가,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이사를 지냈다.

주요 작품에 「내일」(1958), 「견족(犬族)」(1959), 「예비역」(1959), 「포대령」(1968) 등이 있다. 단편 소설집에 『감루연습(感淚演習)』(1978), 『황구의 비명』(1975), 『신궁』(1977), 『혜자의 눈꽃』(1978) 등이 있고, 중편소설집으로 『낙월도』(1972), 장편소설집으로 『낙과(落果)를 줌는 기린』(1978), 『깡돌이의 서울』(1973)이 있다.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천승세의 작품들은 대부분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인정에 바탕을 둔 인간 사회의 비정한 세계를 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민들의 만선에 대한 집념과 좌절을 그린 그의 대표 희곡 『만선』은 비록 작품의 직접적인 무대가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센 전라도 사투

리로 일관된 대사를 통해서 친근함과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목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사 제정 제1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을 수상했으며, 창작과비평사에서 주관하는 제2회 만해문학상, 성옥문화상 예술 부문 대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1990년대 말에 고향 목포에 내려와 말년을 보내다가 2015년 강화도로 돌아갔다.

3) 주요 문학 활동

(1) 월간지 『갈매기』와 주간지 『전우』 발간

1951년 9·28 수복이 되자 해군 목포경비부가 정훈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문예지들이다. 이들 잡지는 당시 목포와 광주 등지에 피난 온 문인들의 작품 발표 무대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두 잡지의 공동 편집 위원은 조희관, 차재석, 이가형, 장병준, 백상건, 이진모, 장덕, 김장한 등이 참여하였으며, 『갈매기』는 김평옥이 주간을, 『전우』는 조희관과 차재석이 공동주간을 맡았다.

『갈매기』는 비록 지령 4호로 중단되었지만 6·25 이후 한국의 출판계를 통틀어 최초의 월간지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포 문단의 바탕을 세우고 정착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타블로이드 판으로 발간된 1951년 2월 1일자 창간호의 필진을 보면, 김현승, 조희관, 목일신, 이수복, 박흡, 이석봉, 박순자, 임성순, 장병준(이상 시), 이가형, 김해석(이상 소설), 차범석(희곡) 등이며, 이어 정소파, 이영식, 이을호, 허건, 김평옥, 홍순태, 손철, 김방한, 이동주, 전병순, 김승한, 승지행, 임병주, 조영암, 박계주, 김송, 공중인, 국승돈, 이금남 등 주로 피난살이하는 문인들이 대거 작품을 발표하였다.

향도출판사에서 발간한 주간지 『전우』는 16절판 20여 페이지에 시, 콩트, 수필, 희곡 등과 목포 시내 중·고생들의 작품까지 실었다. 당시 향도출판사는 목포문화의 산실과 같은 구실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목포 출신 문학도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예술적 자양분을 얻었다.

(2) 목포 최초 시 전문 문예지 『시정신』 탄생

1951년 6월 1일자로 발간한 광주의 종합문예지 『신문학』에 이어 1952년 9월 5일 한반도의 꼬트 머리인 목포에서도 한국문단이 깜짝 놀랄 만한 문예지가 창간되었다. 차재석이 주도한 시 전문 문예지 『시정신』(향도출판사에서 500부 한정판으로 발간)이다. 창간호의 편집인은 차재석 1인 체제였다. 그러나 2호부터 광주의 김현승과 이동주를 끌어들여 3인 공동 편집인 체제를 유지하였다. 여기에 서정주까지 가담하였다.

창간호 필진을 보면 이병기, 신석정, 박용철, 서정주, 김현승, 박흡, 이동주, 계용묵 등 명실공이 당

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총집결하였다. 게다가 제자(題字)는 손재형, 표지화는 배동신, 판화는 천병근 등 한국화단 거목들의 작품들로 장식한 화려한 외양은 문학에 미술을 접목시킨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 화가들의 참여는 차재석의 의도대로 ‘엘리어트’와 ‘달리’의 시화집이라던가, ‘장 콥토’와 ‘피카소’의 시화집’을 탄생시킨 것이다.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신』은 의도대로 발행되지 못했다. 창간호에서 차재석은 계간지를 표방하였으나 이후 2집을 발간하기까지 1년 9개월, 2집 발행 이후 3집 발행까지 1년, 3집 이후 4집 발행까지도 1년 4개월이 걸렸다. 계간지로 발행할 예정이었던 『시정신』이 연간지가 되고 만 셈이다. 그것도 1집부터 4집까지는 안정적으로 발간되었지만 4집에서 5집을 발간하기까지는 10년이나 걸렸다. 결국 5집을 끝으로 종간하고 말았는데, 이는 아마도 재정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시정신』이 목포 문학사는 물론 우리 문단사에 기여한 바는 매우 컸다. 시 전문지가 전무했던 시절 시 전문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 호남 지역이 시문학의 고장이 되는 발판을 마련한 점, 지역에서 발행한 잡지였지만 지역을 뛰어넘는 시 전문지였다는 점, 그리고 멋진 시화집으로 또 하나의 회화를 탄생시켰다는 점이 그것이다.⁴⁴⁾



그림 4 1952년에 발간한 목포 최초의 시 전문 문예지 『시정신』

창간호에는 호남 시인들의 작품만 실려 있는 것이 특징인데, 처음엔 호남의 문예지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주는 시 6편과 산문을 1편을 발표, 모든 권수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김현승은 시 4편을, 박봉우·박성룡·박흡 역시 시 4편을 각각 발표하였다. 서정주와 신석정은 각각 3편, 가람 이병기도 2편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호남 지역의 작가들이었다. 박용철의 미발표 유고작품 「미인」을 실은 것은 박용철이 『시문학』을 창간을 주도한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차재석 등 편집진이 용아 박용철의 묘지를 참배한 다음 시 전문지를 창간하자고 의기투합한 것도 1930년대 시단을 주도했던 ‘시문학과’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였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⁴⁵⁾ 그러나 2호부터는 타지역의 시인들을 대거 포

43) 차재석은 창간호에서 다음과 같이 창간 동기를 밝히고 있다. “1952년 봄 어느 날 영감이 떠오르듯이 멋진 시집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를테면 ‘엘리어트’와 ‘달리’의 시화집이라던가, ‘장 콥토’와 ‘피카소’의 시화집처럼 시가 앞서 좋아야겠지마는 시집의 꾸밈새에 있어서도 멋이 잘잘 흐르면서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시집,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없었던 호화판 사화집을 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동주 씨와 상의해서 서정주 선생과 함께 셋이서 편집을 맡아 보기로 하고 배동신 씨에게 표지그림을 부탁했습니다. 이 구상은 바로 공감을 얻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44) 이승희, 「한국시단의 등배 同人23오류」, 『유심 : 시 전문 월간지』 통권 91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5.

45) 같은 글.

함시키면서 전국적인 시 전문 문예지를 지향하게 된다.⁴⁶⁾

(3) ‘목포문화협회’와 ‘목포 문학회’ 창립

1958년 9월 15일 목포방송국 공보관에서 재목 예술동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목포문화협회’(현 목포예총)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남농 허건을 추대하고, 문학 분야에서는 김일로가 부회장, 차재석이 간사장, 백두성·권일송이 문학부문 간사를 맡았다. 이어 9월 20일에는 ‘목포 문학회’(현 목포문협)가 창립되어 초대 회장에 차재석, 부회장에 백두성, 간사에 전승묵·김영복·정규남·정태정 등이 선출됨으로써 명실공이 조직적인 문단활동을 펼치게 됐다.

(4) 학생 문학 활동 활발

1952년부터는 목포 시내 각급 학교의 학생 문학동인회 활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다. 목포여고의 ‘송사리’, 목포사범학교의 ‘해솔’, ‘별판’, 목포고의 ‘밀꽃’, ‘보리수’, 문태고의 ‘바위’, 동광고(현 흥일고)의 ‘호박’, 목포상고의 ‘여울’ 등의 예비 문인들이 마치 경쟁하듯 항구를 누볐고, 이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별도로 ‘청도(靑濤)’ 동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동인 명단을 보면, 김순광(사범), 신균준(영흥), 이인택(한일은행), 이석운(목고), 이광섭(상고), 박정환(문고), 박준배(동광), 최재환(상고), 이태웅·박영호(사범) 등이다.

1953년에도 박화성, 조희관, 김우정, 김일로, 전승묵, 권일송, 차범석, 백두성, 차재석, 박순범, 박정은 등 목포 거주 문인들의 활발한 문학 활동에 자극을 받은 예비 문인들이 동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목포고의 정규남이 주도한 ‘시와 산문’, 목포사범학교의 김영근이 주도한 ‘별판’·‘별발’, 목포여고의 김광자가 주도한 ‘은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 기성문인들로 구성된 동인회는 1955년 김우정·이영식 등의 ‘각서’, 1959년 김소남·김희웅 등의 ‘낙서’ 정도에 불과하였다.⁴⁷⁾

46) 2호~5호의 필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실로 전국 최고의 필진이었다. 유치환, 모윤숙, 박두진, 김현승, 김춘수, 이원섭, 이형기, 김윤성, 김구용, 서정주, 이동주, 김동리/제자-손재형, 표지화-김환기, 배면화-이준(이상 2호). 유치환, 서정주, 조지훈, 박남수, 김춘수, 조병화, 최재형, 김윤성, 박기원, 김용팔, 김구용, 정수철, 송옥, 박양균, 이형기, 박흠, 전봉건, 이원섭, 이동주/제자-손재형, 표지화-남관, 배화-유경채(이상 3호). 최남선, 이병기, 신석정, 유치환, 김현승, 정훈, 이설주, 은안기, 김상옥, 박양균, 김용팔, 박흠, 이수복, 허연, 이석봉, 박봉우, 박성룡, 이동주, 조희관/제자-손재형, 표지화-김환기, 판화-백홍기(이상 4호). 김구용, 신동집, 조병화, 박성룡, 박희진, 이성교, 황동규, 마중기, 김영태, 권일송, 고은, 김하림, 허영자, 정진규, 이승훈, 김화영 강호무, 최하림, 이동주/제자-손재형, 표지화-변종하(이상 5집).

47) 허형만, 『현대 목포의 문학 - 50년대의 문학』, 『목포 개항 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참조.

4) 등단 문인⁴⁸⁾

서근배(『문예』-소설), 정영래(『문학예술』-시), 윤종석(『국도신문』·『평화신문』·『조선일보』-시), 최일수(『조선일보』-문학평론), 차범석(『조선일보』-희곡), 이창렬(『한국일보』-소설), 박동화(『서울신문』-희곡), 권일송(『한국일보』·『동아일보』-시), 김재희(『문학예술』-시), 윤삼하(『조선일보』-시), 박환(『전남일보』-시), 천승세(『동아일보』-소설), 최덕원(『시조문학』-시조), 정일진(『한국일보』-시), 박문재(『여수일보』-시), 최인훈(『자유문학』-소설)⁴⁹⁾, 백두성(『자유문학』-소설), 전승묵(『한국일보』-시) 등.

5. 전성기(1960년대)

1) 개관

1960년대 한국문학은 1950년대 한국문학을 계승·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이후 한국문학사에 기록할 만한 작품을 남긴 작가들의 상당수가 이미 1950년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작품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196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의 작품에서도 전 시대의 문학적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목포 문학도 마찬가지다.

4·19 시민혁명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 산업화로 인한 경제 구조 개편과 이촌 향도 현상으로 요약되는 1960년대에 이르러 목포는 도시의 인구 규모, 산업 시설, 도시주민의 생활 기반 시설, 그리고 각종 교통망 등에서 전남지역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⁵⁰⁾ 특히 항만의 기능 약화와 일제강점기 산업 시설의 붕괴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도 경제적으로 소외되면서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비판적 성향을 띠게 되었고 ‘야당도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⁵¹⁾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1960년대 목포 문학은 1950년대 회복기 혹은 재생기를 바탕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이를 보면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발달은 시대적 상황에 정비례하기보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희관의 사망과 외지 문인

48) 등단 문인은 1950년대 이후부터 소개한다. 해당 시기에 등단한 주요 문인 명단이기에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49) 비록 한 페이지지만, 함경북도 회령 태생인 소설 『광장』의 작가 최인훈은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친척이 있는 목포로 월남하여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소설 『순교자』의 작가 함흥 태생 김은국도 1947년 북한 정부가 수립되자, 기독교 집안인 그의 집안은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월남해서 남쪽 항구도시인 목포에 정착하여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 두 사람은 목포고등학교의 제5회 졸업생(동기동창)이다.

50) 정근식, 「개관 : 현대의 목포」, 『목포개항백년사』, 목포백년회, 1997.

51) 중국의 개방화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 초반까지 목포는 지속적인 침체의 도시였다.

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터줏대감인 차재석과 1950년대 등단 문인들이 상당수 건재한데다 김지하, 김현, 최하림 등 훗날 한국문단을 주름잡은 굵직한 신인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무렵 목포의 오거리는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다.

1960년대 목포 문학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현실비판의 성향을 지닌 작품들이 늘고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목포문인협회의 출범에 따른 기관지 『목포 문학』이 창간되고, 한국 최초의 산문 동인지 『산문시대』와 목포 최장수 시 동인지 『흑조』를 비롯한 『보름시대』·『해안선』·『목요회』·『목포교육』·『목문학』 등 다양한 문학동인지가 쏟아져 나온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2) 주요 문인 활동

(1) 김현 - 한국 평론문학의 금자탑

김현(金炫, 1942~1990)은 1960년대 초반 김지하, 최하림 등과 함께 목포 오거리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익혀나간 문청(文淸)이었다. 1962년 서울대 불문학과 재학시절에 『자유문학』에 문학평론「나르시스의 시론 -시와 악의 문제」를 발표하며 등단함으로써 1960년대 목포 문단의 선두주자로 뛰쳐나갔다. 동년 여름 김승옥, 최하림 등과 함께 동인지 '산문시대'를 결성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동인지 『산문시대』를 창간·주도했다. 2호부터 강호무·김산초·김성일·염무웅·김치수·서정인 등이 가세한 이 동인회는 서울로 옮겨가 1968년 이른바 4·19 세대가 대거 참여한 동인지 '68그룹' 결성과 1970년 가을 김현·김병익·김치수·김주연 등이 창간한 문학 계간지 『문학과 지성』의 모태가 되었다. 이후 김현은 『문학과 지성』(약칭 '문지')의 문학적 이념과 편집·기획을 주도하면서 수많은 평론을 발표해 한국평론문학의 독보적 존재로 군림하다가, 1990년 6월 48세라는 짧은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현은 죽은 뒤 “1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평론가였다.”(시인 황지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대의 한국문학에 넓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또래가 4월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민주정신을 승계한 적자라고 굳게 믿으며 식민지 언어가 아니라 한글로 사유하고 한글로 글을 쓴 제1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엄청난 독서량과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작품 분석, 인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드넓은 지적 관심, 그리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비평을 창작에 기생하는 장르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 끌어올린 최초의 비평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그의 비평 문체는 이른바 '김현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비평의 대상이 된 작가들이 즐겨 읽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 비평의 영역에 있어서 먼 훗날까지도 뛰어넘기 어려운 봉우리로 남아 있을 것이 틀림없으며, 이 땅에서 가장 독창적인 언어 세계를 보여준 비평가로 평가된다.

김현은 살아생전 240여 편에 달하는 문학평론과 저서를 남겼다. 김윤식과 함께 『한국문학사』(1973)를 펴냈으며,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경향들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존재와 언어』(1964)·『한국문학의 위상』(1977)·『분석과 해석』(1988) 등의 책을 펴냈다. 또한 그는 불문학자로서 좀 더 세계적인 보편적인 관점으로 우리 문학을 읽어내고 거기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외국문학 연구에도 관심을 보여 『바슐라르 연구』(곽광수와 공저, 1976), 『현대비평의 혁명』(1977), 『문학사회학』(1980),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1989), 『시칠리아의 암소』(1990) 등을 펴내기도 했다. 그가 죽은 뒤에도 평론집 『말들의 풍경』(1990), 유고일기 『행복한 책 읽기』(1992) 등이 나왔으며, 1993년에는 문학과지성사에서 『김현문학전집』 전 16권이 집대성되었다. 외국문학 논문상(1988), 제1회 팔봉비평문학상(1989) 등을 받았다.⁵²⁾

(2) 최하림 - 한국시단의 균형주의자

최하림(崔夏林, 1939~2010)은 목포 해안통과 오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문학 청년기를 보냈다. 1962년 김현, 김승옥 등과 함께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동인지 『산문시대』를 5집까지 발간하였다. 박석규·원동석·김소남·양계탁 등과 「고도를 기다리며」를 무대에 올리는 등 연극에도 관심을 보였다. 나중에 『문학과 지성』 창간에 관여하기도 했다. 1965년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하다가 1988년 광주로 내려와 10년 동안 『전남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 은퇴 이후엔 충북 영동과 경기도 양수리를 전전하다가 2010년에 지병으로 아깝게 타계했다.

산문시대 동인으로 활동하던 196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빈약한 올페의 회상」이 당선되어 시단에 나온 그는 우리 시단의 균형주의자 혹은 중간주의자로 잘 알려진 시인이다. 그는 목포 오거리의 문청시절을 회상하면서 “김현이 아폴로였다면 김지하는 디오니소스였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두 사람을 합친 이미지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문학을 전공한 김현을 통해 프랑스 상징주의 시를, 김지하를 통해 현실주의의 시세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시 세계는 초기 모더니즘에서 중기에 리얼리즘으로 바뀌었다가 후기에 다시 이를 통합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시적 사유도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적당히 혼용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색깔로 말하면 회색에 가깝다. 그래서인지 문단의 주목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

52) 그러나 그는 목포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고(10년 미만), 목포 문단과의 인연이 거의 없는데다가, 평소 지방색(전라도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가급적 전라도와 관련한 글을 쓰지 않았고, 전라도 출신 문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최근엔 목포에서 '김현문학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살아생전 그의 문학적 성향과는 다른 '목포작가회의'라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1995년 김현문학비 건립위원회가 향토문화관에 뒤쪽에 세운 김현문학비가 있으며, 2011년 목포문학관에 '김현관'이 들어섰다.

최하림의 시에 나타난 목포는 첫 시집 『우리들을 위하여』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문청 시절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 말라르메, 발레리 등에 경도되어 있었다. 특히 발레리의 시집 『해변의 묘지』는 불박이 텍스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첫 시집에는 지중해의 몽환적 이미지가 넘실거린다. 「황혼」 등 초기시의 주요 무대는 목포의 해안통과 대반동 바닷가이다. 그는 학교를 가지 않은 날이면 늘 혼자서 해안통을 거닐었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목포 해안통과 대반동 일대는 그의 초기시가 태어난 산실인 셈이다. 그러나 그의 바다와 관련된 시편들은 구체적인 삶이 살아 있는 건강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둠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등단작 「빈약한 올페의 회상」에는 1960년대 초반의 암울한 시대 상황이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시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1976), 『작은 마을에서』(1982), 『겨울꽃』(1985), 『겨울 깊은 물소리』(1987), 『속이 보이는 심연으로』(1991), 『굴참나무숲으로 아이들이 온다』(1998), 『풍경 뒤의 풍경』(2001), 『때로는 네가 보이지 않는다』(2005) 등 8권과 2010년 작고 직전에 발간한 『최하림 시 전집』이 있으며, 시선집 『사랑의 변주곡』, 미술 에세이 『한국인의 멋』, 김수영 평전 『자유인의 초상』, 산문집 『멀리 보이는 마을』 등을 펴냈다. 조연현문학상, 이산문학상, 올해의 예술상 문학부문 최우수상(2005)을 수상했다.

(3) 김지하 - 목포가 낳은 세계적인 시인

김지하(金芝河, 1941~)의 본명은 영일(英一), 지하는 필명이다. 1941년 목포시 산정동 1044번지에서 동학농민운동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목포산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1954년 아버지를 따라 원주로 이주했다. 원주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 다니던 중 천주교 원주교구의 지학순(池學淳) 주교와 인연을 맺은 뒤 1956년 서울 중동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문학의 길로 들어섰다. 1959년 서울대학교 미학과에 입학한 이듬해 4·19혁명에 참가한 뒤 학생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5·16군사정변 이후에는 수배를 피해 목포 등지에서 항만의 인부나 광부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하였다. 1963년 3월 『목포 문학』 2호에 ‘김지하’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시 「저녁 이야기」가 처음으로 활자화되었고, 1964년 6월 ‘서울대학교 6·3 한일굴욕회담반대 학생총연합회’ 소속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4개월의 수감 끝에 풀려난 뒤, 1966년 8월 7년 6개월 만에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69년 11월 오거리 친구인 김현의 도움을 받아 시 전문지 『시인』에 5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반체제 저항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1970년 『사상계』 5월호에 권력 상층부의 부정부패상을 판소리 가락으로 담아낸 담시 「오적」을 발표하였다. 「오적」으로 인해 『사상계』와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의 발행인과 편집인이 연행되었고, 『사상계』는 정간되었다. 김지하는 이때 「오적」 필화사건으로 구속되었으나 국내·외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석방되었다. 이후 희곡 「나폴레옹 꼬냥」, 김수영

추도시론 「풍자나 자살이나」를 발표하였고, 그해 12월 목포를 시적 배경으로 삼은 첫 시집 『황토』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1980년 감옥에서 석방되어 1982년 두 번째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를 발간하였다. 1984년 사면 복권되고 저작들도 해금되면서 1970년대의 저작들이 다시 간행되었고, 이 무렵을 전후해 최제우(崔濟愚)·최시형(崔時亨)·강일순(姜一淳) 등의 민중사상에 독자적 해석을 더해 ‘생명사상’이라 이름하고 생명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이때 변혁운동 진영으로부터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시집으로 『애린』(1986), 『검은 산 하얀 방』과 최제우의 삶과 죽음을 담은 장시집 『이가문 날에 비구름』(1988), 서정시집 『별발을 우러르며』(1989) 등을 펴냈다. 1990년대에는 1970년대의 활기에 찬 저항시와는 달리 고요하면서도 축약과 절제·관조의 분위기가 배어나는 내면의 시 세계를 보여주었는데, 『일산 시첩』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3년 그동안 써낸 시들을 묶어 『결정본 김지하 시 전집』 3권을 출간하였고, 1994년 『대설 南』과 시집 『중심의 괴로움』, 1999년 이후 『김지하의 사상기행』과 시집 『화개』, 『유목과 은둔』, 『새벽강』, 『비단길』 등을 펴냈다. 1998년부터 율려학회를 발족해 ‘율려사상’⁵³⁾과 신 인간운동을 주창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포를 소재로 한 김지하의 시는 첫 시집 『황토』에 집중되어 있다. ①「산정리 일기」, ②「비녀산」, ③「성자동 언덕의 눈」, ④「용당리에서」, ⑤「황토길」 등이 대표적이다. ①에서 ④까지 제목에 나타난 지명은 지금도 현전하며, ⑤의 시 속에 나오는 ‘부주산’, ‘오포산’도 마찬가지다. 이들 시는 1961년 남북학생회담 남쪽대표 3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명 수배된 그가 학업을 중단하고 목포로 도피하여 항만인부생활 등을 하며 20대 초반의 피 끓는 젊음을 숨어 지낼 때의 체험을 모티프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무렵의 기억을 쓴 산문 「고행」에서 목포를 ‘내 시의 어머니, 굽이굽이 한이 맺힌 저 핏빛 황토의 언덕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김지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반체제 저항시인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명사상가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자 사상가이다. 1970년대 내내 민족문학의 상징이자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으로서 도피와 유랑, 투옥과 고문, 사형선고와 무기징역, 사면과 석방 등 형극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그는 1975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대되었고, 같은 해 감옥에서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로부터 로터스상을, 1981년엔 세계시인대회로부터 위대한 시인상과 브루노 크라이스키상을 수상함으로써 유사 이래 세계적인 시인의 반열에 오른 한국 최초의 문인으로 기록되었다. 목포 유달산 뒤쪽 어민동산에 그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53) ‘율려(律呂)’는 원래 음악용어이지만, 음양오행의 동양철학에 기초하고 있고, 고대신화에서 천지창조의 주인공으로 일컬어지는 등 철학, 신화학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다시 말해 율려론은 음양오행의 주역 철학에 기초하였으며, 상생과 상극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율려는 오늘날 증산도에서 태을주사상을 결합시켜 신앙화하고 있으며, 김지하의 생명사상에서도 중심을 이루게 된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상, 국학자료원, 2006, 612쪽).

(4) 김일로 - 목포 시단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인

김일로(金一路, 1911~1984)는 광주·전남 아동문학 1세대로 평가되는 시인이다. 본명은 김종기(金鍾起)이다. 1911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으며 아호는 '한길'이다. 1955년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황산중학교를 설립하고, 1960년 5월부터 매월 2회씩 노래 선물 「꽃씨」를 발행해 전남 13개 시·군 100개 학교에 411부를 무료로 보내는 운동을 펼치는 등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 전라남도문화상, 성육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목포와 서울에서 수차례 시화전을 열기도 했다. 예총 목포지부장,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동시집 『꽃씨』와 시집 『송산하(頌山河)』가 있다.

그는 조희관과 마찬가지로 등단과정 없이 문학에 입문한 과작의 시인이다. 그러나 1964년 아산 조방원과 합작 시화전에 출품한 「그네」 등 8편이 『한국동요동시집』에, 1965년 매정 이창주와 합작 시화전에 출품한 「꽃씨」 등 5편이 『한국아동문학전집』 11권에, 그리고 1975년 『신한국문학전집』 2권에 「눈」 등 7편이 수록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짧고 압축성이 강한 시를 통해 여백의 미학을 극대화한 그는 작품성만 놓고 볼 때 목포 시단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바, 앞으로 재조명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윤종석 - 목포 시단의 청지기

윤종석(尹宗碩, 1938~)은 1960~1970년대 목포 시단의 청지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적 성취도보다는 오랫동안 남을 위하여 굶은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더 기억된다. 대개 시인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귀찮은 일을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감안할 때 그의 이러한 면모는 목포 문단을 위한 기여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가 목포 시단을 위해 기획·발간한 책들만도 10여 권이 넘는다.

윤종석의 시적 출발은 화려했다. 그는 196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자유문학』·『현대문학』 등을 통해 등단했으며, 1961년 목포에서 최하림 등과 '아트라스의 사람들'이라는 동인을 구성·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첫 시집 『환상무도』(1974)를 펴낼 때까지만 해도 시적 상상력과 시정신이 자못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6) 김학래 - 목포 수필 문단의 산증인

김학래(金鶴來, 1934~)는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으며 목포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과 문학 활동을 펼쳐왔다. 1963~1966년 『새교실』·『교육자료』에 3회 입선 천료되어 수필가로 등단했다. 1999년 목포 대연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했다. 수필집 『겨울밤』 등 9권을 출간했다. 김학래의 수필은 토속

54) 『주간목포』 1999. 11. 김선태, 「목포 출신 시인 산책-5」.

적이고 전원적인 소재와 농어민 생활의 애환과 서민 세계의 일화가 중심이다. 한국문인협회 전남지회장, 목포지부장, 전남수필문학회장, 영호남수필문학회장을 역임했다. 2013년 ‘올해의 수필인상’을 수상했다.

3) 주요 문학 활동

(1) 목포문협 기관지 『목포 문학』 창간

1960년대가 시작되자마자 연간 문예지 『목포 문학』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발행인은 차재석, 편집위원에 백두성, 전승묵, 김우정, 권일송, 정규남 등이 선임되었다. 『목포 문학』은 이후 2015년 현재까지 계속 그 맥을 이어온 목포문협의 공식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향도출판사에서 총 181페이지의 분량으로 출간된 『목포 문학』 창간호를 보면 박화성, 차범석, 천승세, 전승걸, 이동주, 권일송, 정규남, 김재희, 김정숙, 범대순, 김일로, 윤삼하 등 비교적 화려한 필진이 눈에 띈다. 이처럼 1960년대 목포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목포 문학』은 1950년대의 『시정신』처럼 차재석과 이동주의 편집방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1963년에 발간된 2호에는 습작기의 김지하가 시 「저녁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했다. 『목포 문학』의 창간에 이어 1962년에는 목포문화협회도 한국예총 목포지부로, 목포 문학회도 한국문협 목포지부(초대 지부장: 차재석)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2) 한국 최초의 소설동인지 『산문시대』

1962년 김현·최하림·김승옥이 목포 오거리 일대 다방에서 ‘산문시대’⁵⁵⁾ 동인을 결성하고 전주 가림출판사에서 200부 한정본으로 한국 최초의 소설동인지 『산문시대』를 창간하였다. 나중에 강호부·김산초·김치수·김성일·염무웅·서정인 등이 가세한 이 동인회는 1964년 5집까지 발간하고 1968년 해체한 뒤, 그 본거지를 서울로 옮겨 ‘68그룹’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이어 역사적인 계간 문예지 『문학과지성』⁵⁶⁾ 창간의 모태가 된다.

55) “1961년 겨울, 남도의 항구도시인 목포의 한 다방. 곧 눈이라도 내릴 듯한 회색빛 하늘, 잎 진 가로수를 훑고 지나가는 찬 겨울바람. 갈탄 난로가 타고르고 있는 한 다방 안에서 스무 살을 갓 넘긴 문학청년 몇몇이 둘러앉아 문학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니체의 철학도 한동안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뒷날 이들 중 한 명이 20세기 후반기 한국문학을 견인하는 중요한 비평가가 되고, 또 두 사람은 한국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소설가와 시인이 된다. 비평가는 김현이고, 소설가는 김승옥이고, 시인은 최하림이다. 1962년 여름, 한국어로 사유하고 한국어로 글을 쓴 최초의 한글세대인, 아직 너무나 젊은 한 무리의 문학 지망생들이 모여 만든 ‘산문시대’는 그렇게 탄생한다.”(장석주, 「장석주의 ‘한국문단 비사」, (28)-문학평론가 김현(上), 『한국경제』, 2002.11. 29.)

56) 『문학과지성』은 『창작과비평』과 더불어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문단을 이끌어온 중심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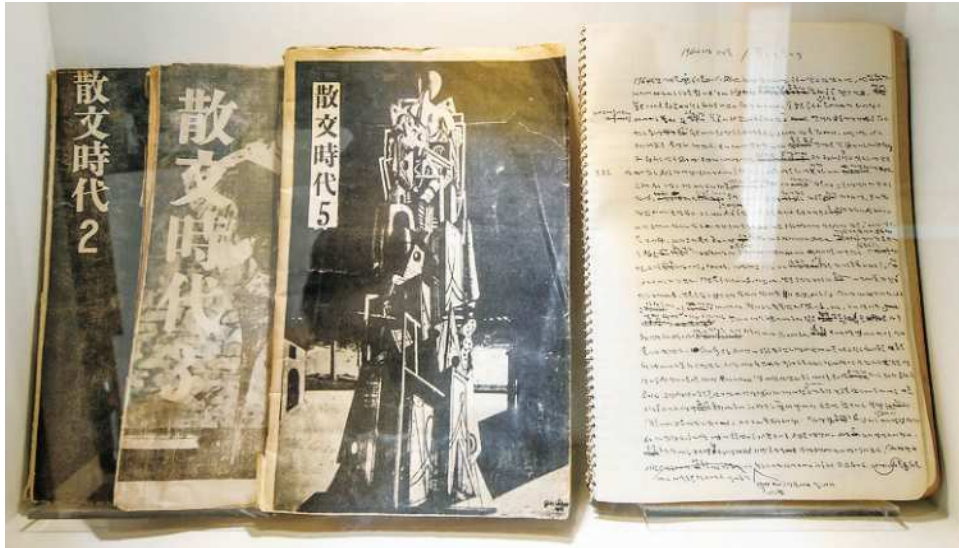


그림 5 훗날 계간 문예지 『문학과 지성』의 모태가 되었던 한국 최초의 소설동인지 『산문시대』

‘산문시대’ 동인들은 4·19혁명에서 고취된 자유의 정신을 계승하며 이를 문학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대론적 전략을 구사하며 낡은 문학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언어와 문법의 구축으로 나아갔다. 대학생 중심으로 형성된 이들의 활동은 지방출신, 외국문학 전공자, 서울대 문리대 학생이라는 상징 자본을 활용하며 자신들의 동인지를 ‘대학생 문단지’로 철저히 규정하고 기성 문단과의 차별화의 전략을 구사했다. 작품 수준을 고려해 등단한 사람으로 제한했다는 점, 당대 문학적 지형도를 의식해 산문을 선택했다는 점, 대학생이라는 상징 자본을 활용했다는 점은 이 동인 구성이 그들 청년 문학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총량, 즉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전략적 배치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⁷⁾

(3) 한시문집 『목포풍아집』 발간

1965년 목포시사(木浦詩社)가 한시(漢詩) 문집인 『목포풍아집(木浦風雅集)』을 발간하여 예로부터 목포가 시향(詩鄉)이요 문향(文鄉)으로 이름이 높았던 곳이었음을 한눈에 보여주었다. 이 문집에는 유산정기, 유산정 상량문, 유선각기, 목포팔경, 이충무공유허비, 지천묘비, 삼효비각, 효열부인 김씨 찬양문 등과 함께, 수성사 창건기(죽동·대성·유달·산정·온금), 무정 정만조, 미산 허형, 초정 김성규,

57) 이서진, 『동인지 『산문시대』 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2010.

김철진, 차남진, 김용진, 김대중(전 대통령, 당시 국회의원), 김문옥(전 국회의원), 하동현·송성룡(전 목포시장), 이훈동(전 조선내화 회장), 임광행(전 보해양조 회장), 조효석(언론인) 등의 한시 600여 편이 실려 있다.⁵⁸⁾

(4) 목포 최장수 시 동인지 『흑조』와 『보름문학』 창간

1966년 12월 1920년대 『백조(白潮)』에 대응하여 목포와 신안군 출신 시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 전문 동인지 『흑조(黑潮)』가 창간됐다. 이생연·주정연·정영일·김창완·정설현·박광호·승린·양문열·정지하·윤미순·부원배 등을 동인으로 출발한 『흑조』는 ‘어둠을 지나 밝음으로 또는 미명을 거쳐 참다운 삶에 옮겨 가고자 하는 의지로서의 검정색 이미지’를 내걸고 청마 유치환의 격려사를 머리에 곁들였다.

문학 가운데서도 시는 허구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체험적 바탕 위에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이란 만년을 배제하고서도 끝까지 긍정의 바탕 위에서 성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인이란 얼마나 인생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되겠습니까? …… 외롭게 시에 뜻하는 젊은 벗들은 부디 문학에만이 아니라 인생 매사에 성실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래 그것이 좋은 시를 낳는 길인 것입니다.⁵⁹⁾

『흑조』는 2000년 제28집 『흑조시선』을 끝으로 비록 폐간되었지만 목포 문단 최장수 시 전문 동인지일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대표적인 동인지였다. 또한 동인들의 활동성과 작품성을 감안할 때 1970년대 이후 침체에 빠진 목포 시단의 명맥을 그나마 간신히 유지해온 유일한 세력이었다.⁶⁰⁾

58) 2012년에는 목포문화원에서 번역본을 출간한바 있다.

59) 유치환, 「격려사」, 『흑조』창간호, 흑조시인회, 1966 참조.

60) 1970년대 이후 최병두, 김동하, 김정숙 등이 새로운 멤버로 가담하였다.

(5) 목포 예술인의 아지트 ‘목포 오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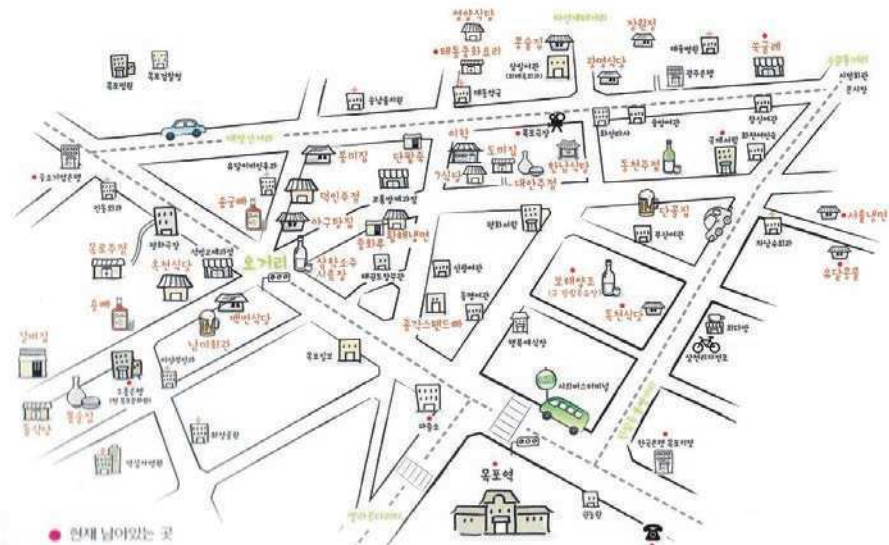


그림 6 1950~1960년대 목포 문인과 예술인의 아지트였던 오거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항구도시 목포의 추억1번지, 오거리』, 2013, 146쪽에서 인용)

1950~1960년대 목포 오거리는 문인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아지트였다. 문청 시절 김지하, 김현, 최하림 등이 이곳에서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였고, 『산문시대』·『흑조』 등 문학 동인지들이 이곳에서 탄생했으며, 연극 공연이며 문학의 밤 등 행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열렸다.⁶¹⁾ 오거리 일대 다방⁶²⁾이며 주점⁶³⁾은 밤이면 언제나 예술인들로 북적거렸다. 그래서 근래 EBS에서 방영한 「명동백작」은 1950~1960년대 한국문학의 중심 공간으로 서울 명동과 목포 오거리를 다뤘다. 비록 지금은 도시의 중심이 하당이나 남악으로 옮겼지만, 지금도 이곳은 목포예술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추억의 공간이요 살아 숨 쉬는 현장이 아닐 수 없다.

(6) 교단 문예지 『해안선』·『목포교육』·『목문학』

1950년대에 이어 1960년대에도 교단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 동인지 활동이 활발하였다.

61) 미술인뿐 아니라 사진작가들의 작품전이나 시인들의 시화전 역시 이곳 오거리 다방에서 열렸다(김병고, 「오거리 애환과 화랑, 화방에 부쳐」, 『목포예술인들의 빛과 그림자』, 목포투데이, 2008)

62)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당시 밀물·청예·새마을·목우·세종·황실·목 다방에서는 그림·서예·시화·사진전이 끊임없이 열렸다(김병고, 「시인 아산 박순범(1930~1989) 목포 문학과 오거리와 수석 사랑」, 앞의 책, 참조).

63) 당시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도 '덕인주점'이 명맥을 잇고 있다.

1966년에는 박현숙, 김용원, 이준행, 나영복, 김정옥, 김현수, 박종봉, 김성자, 김길순, 양대성, 강갑순, 양문열, 양재철, 김원기, 박진남, 김준기, 홍성구, 박무웅 등을 동인으로 『해안선』이 창간되어 계간으로 8집까지 발간했다. 윤미순, 김상수, 김성원, 양계승, 김정원, 이무성도 뒤를 이어 동참했다. 또한 김학래, 최두호, 박성천 중심의 ‘목요회’와 1969년 박순범, 김학래, 김재희 등이 주축이 되었던 『목포교육』·『목문학』도 발간되었다.

이 밖에 학생 문학 동인회 ‘강강수월래’·‘징검다리’·‘뚝배기’의 활동도 활발했다.

4) 등단 문인

천승준(『현대문학』-문학평론), 윤종석(『자유문학』·『현대문학』-시, 재등단), 김우정(『조선일보』-문학평론), 박진환(『자유문학』-문학평론), 조정자(『여원』-시), 김정숙(『현대문학』-시), 김하림(『자유문학』-시), 박홍원(『현대문학』-시), 최일환(『아동문학』-동시), 김현(『자유문학』-문학평론), 김송희(『현대문학』-시), 최하림(『조선일보』-시), 김종한(『서울신문』-동화), 김길호(『중앙일보』-희곡), 천승세(『경향신문』·국립극장 현상공모-희곡), 김학래(『새교실』·『교육자료』-수필), 박환(TBC-TV-드라마), 송기숙(『현대문학』-문학평론), 정규남(『현대문학』-시), 박건한(『문학』-시), 원갑희(『중앙일보』-희곡), 정영일(문화공보부 현상공모-시), 강무창(『전남일보』-소설), 김엄조(『호남매일』-시), 김지하(『시인』-시), 양동온(『교육자료』-동시) 등.

6. 퇴행기①(1970년대)

1) 개관

목포항의 엄청난 물동량 감소와 삼학양조의 파산으로 요약되는 1970년대 목포의 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었다. 최고 13만 톤이었던 목포항의 물동량은 이 시기에 겨우 66천여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그것도 실제로는 훨씬 미치지 못하여 부두노동자들은 인천 등 다른 항구로 이주해갔다. 1970년대 말에 이르면 목포의 경제적 지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추락했다. 한때 전국 3대항 6대도시라던 목포는 ‘3급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1970년대의 목포문단은 소위 문인들의 이촌향도현상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차범석, 권일송, 김재희, 윤삼하, 천승세, 최인훈, 천승준, 김우정, 김정숙, 김하림, 최하림, 김현, 김길호, 송기숙, 박건한, 김지하 등 1950~1960년대의 목포 문단을 풍요롭게 하였던 주요 문인

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빠져 나갔다. 이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간 목포 문단은 알맹이 없는 쪽정리와 같아서 목포 문학도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목포 문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이었으며, 문학의 중앙 집중화는 중앙 문단과 지방 문단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폐해로 작용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문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지난 시절을 추억하는 과거 추수적이고 자족적인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데 그침으로써 문학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했다. 또한 작품성보다는 행사 위주의 문단 활동과 문단 권력을 둘러싼 이전 투구현상까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1970년대 목포 문학은 그대로 복지부동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목포문단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동문학의 분위기가 형성·확산되었다는 점이다. 1971년 『어린이 목포』 창간을 필두로, 1973년 전남아동문학의 밤, 1974년 소리아동문학의 밤 등이 잇달아 열렸다. 게다가 정중수, 최일환, 최재환, 유미순, 김종두, 박순범, 김재용, 서오근, 고정선, 김광채, 정대성 등이 아동문학 작품집을 발간하거나 아동문인으로 대거 등단함으로써 아동문학의 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일어났다. 그리고 종합문예지 『월간 향토』를 비롯한 동인지 『청호』와 『나루』가 창간되어 1960년대의 명맥을 이어갔다.

2) 주요 문인 활동

(1) 이생연 - 진정한 부끄러움과 겸손의 시인

이생연(李生淵, 1938~2005)은 무안에서 태어나 일찍 목포로 이주한 후 작고할 때까지 살았던 철저한 향토시인이다. 그는 약 40년 동안 시를 써왔지만 끝끝내 단 한 권의 시집도 출간하지 않고 세상을 뜬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한 1966년 시 전문 동인지 『흑조』의 창간멤버로 참여하여 작고할 때까지 『흑조』와 함께 한 유일한 시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시보다 인간성이 앞선 시인이다. 그는 스스로 시인임을 자처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쓴 시마저도 반드시 시라고 우기지 않았다. 부끄러움과 겸손한 마음이 시를 앞지르기 때문이다. 근래에 시인답지 않은 시인들로 떠들썩한 목포 시단을 감안할 때 그의 이러한 아름다운 면모는 오래 기억될 만하다. 그는 목포를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향토사학자로 더 기억되고 있다.⁶⁴⁾

64) 1991년 『문학세계』를 통해 뒤늦게야 다시 등단이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는 그리 중요한 일이 못된다. 필자가 보기에 그는 끝까지 등단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2) 최일환 - 목포·전남 아동문학 발전에 기여

최일환(崔日煥, 1939~2005)은 해남에서 태어나 목포고등학교와 명지대학교를 졸업한 뒤 1963년 『아동문학』을 통해 동시로 등단했다. 1973년부터 『시문학』 등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를 쓰기도 했다. 문태고등학교 교사로 봉직하면서 목포문인협회장, 전남아동문학가협회장, 전남문인협회장, 전남시인협회장, 목포예총회장을 맡아 목포 문학과 전남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세종아동문학상, 남농예술상, 강소천아동문학상, 전남도문화상 등을 받기도 했다. 사망하기 전까지 10권의 동시집과 10권 가량의 시집을 남긴 부지런한 시인이었지만, 그도 작품성보다는 김학래, 윤종석처럼 외적인 활동에 더 주력했다. 동시집으로 『푸른색 웃음이』 등과 시집으로 『부뭇골 뜰복새』 등이 있다.

(3) 최재환 - 목포 시단의 마지막 선비

최재환(崔才煥, 1942~)은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린 전남 신안군의 유일한 섬 아닌 섬 지도읍에서 태어나 목포유달초등학교와 목포상업고등학교를 거쳐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목포상고 재학 중에 ‘여울’이라는 문학 동인회를 결성했고, 목포 시내 고등학생 통합 문학동인회 ‘청도(靑濤)’를 조직·주도하기도 했다. 36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광주의 ‘원탁시’ 동인 등으로 활동해왔고, 현재는 승달산이 있는 무안 청계에 은둔하며 1970대 후반 무욕의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목포 시단의 마지막 선비이자 청빈한 은둔주의자라고 할 만하다. 시보다 동시로 먼저 등단하여 두 권의 동시집을 가지고 있는 그는 1977년 『시문학』 추천으로 등단한 이후 첫 시집 『표구 속의 얼굴』 등 10여 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4) 박순범 - 목포 시단의 유일한 실향민

박순범(朴洵範, 1928~1989)은 목포 시단의 유일한 실향민 시인이다. 제 땃줄을 묻은 곳을 등지고 객지를 떠도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실향민이겠지만, 그가 유독 북쪽에 고향을 두고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평양 태생으로 6·25 때 월남하여 반도의 꼬트머리 목포에 닿을 내린 그는 이후 40년의 교편 생활을 마감하고 무안의 임성리에 묻혔다. 그는 목포 시단에서 김일로, 이생연과 함께 대표적인 과작의 시인이다. 생전에 발간한 시집 『세월』(1980)과 유고시집 『임성리 옛집』(1990)이 그 전부이기 때문이다. 작품성보다는 문단 활동에 주력하여 목포예총과 목포문협 지부장을 다년간 역임하기도 했다.⁶⁵⁾

65) 『주간목포』 2000. 04. 김선태, 「목포 출신 시인산책·19」.

3) 주요 문학 활동

(1) 새싹 키우기 운동 벌인 『어린이 목포』

1971년 목포 아동문학의 시발점을 알리는 『어린이 목포』가 창간되었다. 목포시 교육장 박찬대가 발행하고 김학래, 김관재, 손수남, 박성천, 김정신 등이 편집한 『어린이 목포』는 동요 동시를 ‘노래 글’, 산문을 ‘줄글’이라는 순우리말로 표기하면서 목포 시내 어린이들의 글 42편을 실었는데, 이는 목포 문학의 새싹 키우기 운동으로 번졌다.

(2) 아동문학의 밤, 동시집 발간 활발

1970년대가 아동문학의 연대임을 알리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3년 전남아동문학회와 현대아동문학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남아동문학의 밤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문협 부이사장 김요섭, 한국문협 아동문학분과회장 박화목, 현대아동문학 주간 송명호, 한국 아동문학회장 김영일 등이 참석했다. 1974년에는 전남아동문학회 주최 박화목 초청강연 및 소라 아동문학의 밤이 열렸고, 이어서 김신철이 박화목 선생을 초청하여 해인문학의 밤을 열기도 했다.

또한 양문열이 『민들래의 말』, 김종두가 『해님이 사는 꽃밭』을 펴냈으며, 정중수, 최일환, 최재환, 유미순, 김종두, 박순범, 김재용, 서오근, 고정선, 김광채, 정대성 등이 아동문인으로 등단했다.

(3) 『월간 향토』·『청호』·『나루』 발간

1972년 김익주가 편집하고 이복주가 발행한 『월간 향토』가 창간되었다. 1984년 27호까지 발간된 이 잡지는 종합문예지로서 한 몫을 톡톡히 담당했다.

1976년에는 문학동인지 『청호』와 『나루』가 창간되었다. 『청호』는 이미 1974년 목포의 옛 이름인 청호의 기치를 들고 40대의 문인들이 향토를 지키면서 문학하는 목포의 풍토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결성되었던 동인회인데, 이를 새로 정비하여 김신철, 김재희, 문성원, 양문열, 박순범, 이태웅, 최일환, 최재환, 김학래 등이 첫 작품집을 펴낸 것이다. 『나루』는 목포시 대학문예부연합체의 동인지로 강정숙, 신수균, 박순례, 신종식, 황부영, 최점순, 지형원, 전성연(이상 시), 박영자, 박원석, 윤종기, 정희숙, 이문임, 문행규, 추향수, 양선일(이상 수필), 오재원 박수호(이상 논단), 정연근, 정금덕(이상 창작, 콩트), 채희운(희곡) 등이 참여했다.

4) 등단 문인

정중수(『한국일보』-시·동화, 『중앙일보』-동시), 허형만(『월간문학』-시, 『아동문예』-동시), 주정연(시집 『인구문제』-시), 이지훈(『전남일보』-희곡, 『조선일보』-소설), 윤미순(『새교실』-동시), 김청원(『중앙일보』·『서울신문』-희곡), 정일진(『현대문학』-시), 김종두(『소년』-동시), 최재환(『중앙일보』-동시, 『시문학』-시), 조승기(『중앙일보』-소설), 박현(『월간문학』-시), 김수기(『서울신문』-논픽션), 서오근(『월간문학』-동시), 김양호(『한국일보』-소설), 김재용(『아동문예』-동시), 박순범(『아동문예』-동시) 등.

7. 퇴행기②(1980년대)

1) 개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80년대의 목포 문학은 사회적·경제적인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한 채 1970년대 쇠퇴기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문인들의 출향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 썰렁한 후유증은 여전했고, 1950년대부터 조희관과 더불어 목포 문단의 기반 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던 차재석 등의 타계는 문학적 중심축의 부재를 불러왔다. 그런가 하면 목포교대가 4년제 목포대학으로 승격·개교(1979)하면서 개설된 국문학과에 소설가 이동하·유금호와 시인 허형만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문인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리고 1980년 벽두부터 자생적 문인 단체인 ‘한국문협 목포지부’가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한국문협 전남지부’ 결성으로 인해 해체되었다가 다시 환원하는 등 문단 조직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여전했다. 사회적으로 목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영향권에 있는 인근도시였으나, 목포 문학은 민중·민주로 요약되는 시대의 화두를 문학 작품으로 담아내지 못했다. 또한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골몰하기 보다는 행사 위주 활동에 치중하였고, 향토적 소재에 급급하거나 화려했던 전성기의 추억을 곱씹는 퇴행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영산강 하구언 완공 등 소위 ‘서남해안 시대’의 기치를 내건 변화의 바람은 일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친 채 침체가 계속되었다.

2) 주요 문인 활동

(1) 허형만 - 부지런함과 성실성의 시인

허형만(許炯萬, 1945~)은 순천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82년 목포대신문사

편집국장으로 부임하면서 향도 목포와 인연을 맺은 이후 목포대 국문학과 교수로 약 30년 동안 봉직하면서 목포시단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목포대 평생교육원과 목포시인학교에서 시 창작반을 개설하여 후진 양성에 공헌했다.

1973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가, 1978년 『아동문예』에 동시가 추천되면서 등단한 그는 부지런함과 성실성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1978년 첫 시집 『청명』에서부터 2015년 현재 『가벼운 빗방울』에 이르기까지 15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소파문학상(1979)에서부터 인산문학상(2016)까지 문학상을 다수 수상했으며, ‘목요시’ 동인, 계간 『시와사람』 편집인 등을 역임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시 「동전 한 잎」이 수록되기도 했다.

(2) 명기환 - 바다와 섬의 시인

명기환(明機煥, 1943~)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1962년 목포상고를 거쳐 1964년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1966년 동국대학교 문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시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목포덕인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줄곧 목포 문단에서 활동했다. 주로 목포와 바다와 섬을 노래한 그는 전형적인 향토시인이다. 작품성보다는 문단 활동에 주력했으며, 첫 시집 『목포항』 등 10여권의 시집을 펴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목포문인협회 고문 등을 지냈고, 전라남도문화상과 장애인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3) 조승기 - 은둔의 소설가이자 시인

조승기(趙承起, 1948~)는 목포의 토박이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이후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1985년 『시와 의식』 신인문학상에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목포문태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소설집으로 『돌을 던지는 여자』(1981) 등 3권과 시집으로는 『씨』(1986) 등 10여 권을 출간했다. 소청문학상, 박태진 문학상, 녹색시인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목포 문단에서 은둔의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통한다. 복잡한 문단 활동에 눈과 귀를 닫은 채 오로지 자신의 우거에서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며 조용히 고희(古稀)를 바라보고 있다.

(4) 김휘승 - 낮설고 불온한 시인

김휘승(1957~)은 목포에서 태어나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낮선 시인이다. 목포 문단과의 인연도 전무하다. 다만 그의 이름을 목포 문학사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그가 지독한 과작의 시인이며 한국시단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목포 출신 시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먼저 시인으로서 그의 이름이 낮설고, 고향인 목포 시단에서 낮설고, 객지인 중앙 시단에서도 낮설며, 무

엇보다 그가 쓰는 시는 더욱 낯설다. ‘낯설다’는 단어는 ‘모른다’, ‘알려져 있지 않다’, ‘불온하다’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난해하다’, ‘새롭다’, ‘독특하다’는 문학적 의미를 동시에 끌어안는다.⁶⁶⁾ 1988년 『문학과 사회』로 등단하였으며, 시집으로 『햇빛이 있다』(문학과지성사, 1991)가 유일하다.

(5) 채희윤 - 목포 소설의 맥을 이어가다

채희윤(蔡熙潤, 1954~)은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문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교육대학과 국민대학교를 졸업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후 『한 평 구 흡의 안식』 등 5권의 소설집을 출간하며 주목을 받은 그는 박화성·천승세·조승기 이후 대가 끊기다시피 한 목포 소설의 맥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6) 신정숙 - 목포 여성시인의 자존심

신정숙(申貞淑, 1958~)은 목포에서 태어나 정명여자고등학교와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지금껏 목포에 살고 있는 토박이 시인이다. 1989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그녀는 문단 활동과는 거리를 둔 채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선 이마저 쉬고 있다. 한때는 소설집을 출간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흔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시인들의 시적 한계를 뛰어넘는 치열성과 새로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목포 여성시인의 유일한 자존심으로 통한다. 시집으로 『그렇게도 먼 지구』(1992), 『즐거운 하드록』(1997)이 있다.

3) 주요 문학 활동

(1) 목포문단의 산 증인 차재석 등 별세

1980년대 들어 주로 1950~1960년대에 활동했던 문인들이 대거 별세함에 따라 목포문단의 중심축이 사라져 문단 조직이 헐거워졌다. 1983년 목포예총의 터줏대감이자 목포문단의 산 증인 역할을 했던 수필가 차재석이 1983년 2월 별세했고, 1985년 2월에는 문성원 시인, 12월에는 황의돈 시인, 1987년 9월에는 정규남 시인, 1988년 1월엔 박화성 소설가, 1989년 9월에 박순범 시인이 각각 유명을 달리했다. 이로써 목포 문학은 퇴행이 가속화됐다.

66) 『주간목포』 1989. 06. 김선태, 「목포 출신 시인 산책·23」.

(2) 『시류』·『목포시문학』·『시울』·『별발』·『새솔문학』 창간

1980년 양동온이 주도한 시 동인지 『시류』가 창간됐다. 1983년에는 21명⁶⁷⁾의 시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동인지 ‘목포시문학’이 결성되어 시 동인지 『목포시선집』을 창간한 이후 2015년 현재 한 번도 결호 없이 29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문예 강좌’를 20년 동안 계속해오고 있으며, 1987년부터 ‘시의 날’ 행사 개최, 1996년부터 ‘목포 뱃길 100리 선상시낭송회’⁶⁸⁾를 열고 있다. 1984년에는 시 동인지 『시울』이 창간됐는데 양희성, 홍로기, 김현수, 김영미, 김화숙, 김선기 등이 동인으로 참여했으며, 뒤에 김민재, 이동범, 최재건, 류현옥, 박소미, 서유미, 고춘림, 황금산, 김광우 등이 합류했다. 또한 1984년 서원웅, 윤삼현, 양희성, 조기호가 주축이 된 아동문학 동인지 『별발』과 문학동인지 『새솔문학』이 창간되었다.

(3) 한국문협 목포지부 해체·환원

1987년 5월 전국에서도 일찍 지역 문학 단체를 조직하여 예향 목포의 자존심을 굳게 다져왔던 한국문협 목포지부가 지부장 임기가 가까워지자 새로 전남지부를 결성하겠다는 석연창은 명분을 내세워 해체해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목포개항백년사』는 “5월 10일 기존의 한국문협 목포지부가 해체되고 그 대신 전남지부(지부장: 최일환, 사무국장: 김수기)가 결성되었다가 8월 26일 다시 환원되어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했다(새 지부장: 김학래, 부지부장: 김재용·박길장, 총무: 윤종석, 감사: 정순열·양희성).”고 적고 있다. 이에 목포 문단과는 물과 기름의 관계였던 ‘흑조’ 동인들과 해체 모임에 참석치 못한 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였고, 이들이 새로운 목포문협 재건을 위한 발기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해체에 참여했던 문인들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새 집행부를 구성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목포문협이다.

4) 등단 문인

이충이(『월간문학』-시), 박록담(『현대시조』·『월간문학』-시조·시), 고정선(『교육자료』·『아동문예』-동시), 김선기(『경향신문』-생활수기), 최건(『시문학』-시), 김지수(『한국문학』-소설), 정기석(『시문학』-시), 최병두(『시와의식』-시), 김재용(『새벗』-동시), 조승기(『시와의식』-시), 김정삼(『월간문학』-시),

67) 최재환 등이 주도하여 창립한 이 동인회는 2015년 현재 강성희, 강해자, 고은성, 김경애, 김남복, 김상근, 김영천, 김종구, 김충경, 김혜경, 김혜자, 박영동, 박행자, 유현, 이순남, 이순동, 이순애, 이순희, 이종숙, 전경란, 조기호, 허형만 등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68) 목포시문학회가 1996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목포 뱃길 100리 선상시낭송회’는 목포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열려온 시낭송 행사이다. 이 낭송회 회원의 한 사람인 김상근 시인은 1996년부터 자신의 소유인 신진페리호를 무료 제공해 왔다.

명기환(『시문학』-시), 양희성(『아동문예』·『월간문학』-동시·시), 김찬호(『시와의식』-시), 김수기(『아동문학』-평론, 『월간문학』-수필), 정순열(『월간문학』-희곡), 신정숙(『현대시학』-시), 채희윤(『한국일보』-소설), 김광채(『아동문학』-동화, 『수필문학』-수필), 이중기(『동양문학』-희곡), 윤미순(『문화과의식』-시), 조기호(『광주일보』-동시), 박문재(『현대문학』-시), 김관재(『한국시』-시), 박행신(『아동문예』·『눈높이문학』-동시), 김정숙(『시대문학』-시), 박영희(『민익』-시), 김화숙(『한국아동문학』-동화) 등.

8. 침체기(1990년대)

1) 개관

1990년대는 정치적 이념의 벽이 사라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며 문화적으로 신세대 열풍이 불었던 시기이다. 특히 1997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목포 사람들의 오랜 정치적 한이 해소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 목포 문학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다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다. 구시대적 사고가 만연한 목포 문단의 폐쇄성은 더욱 견고해졌고, 문인들은 사분오열되었다. 어찌 보면 신인들이 대거 등단하여 문인들의 수는 늘었으나 작품성을 담보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은 문인은 극히 드물었다. 변화의 바람과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였다. 반면에 출향 문인들의 활동상은 눈부셨다. 특히 김지하, 김현, 최하림, 황현산 등은 한국문학의 중심에 우뚝 서서 그나마 목포 문학의 자존심을 달래주었다.

그런 속에서도 1990년 4월 16일 유달산 소재 ‘목포시사’에서 전국 유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백일장대회가 열렸고, 8월엔 ‘우리문학기림회’(회장: 이명재 중앙대학교수, 평론가)가 목포 출신 문인 박화성, 김우진, 김진섭의 표지석을 세웠다. 1991년엔 민예총 목포지부 문학위원회(초대 위원장: 김주완 현 목포작가회의)가 결성되어 지금껏 목포문협 단일 체제였던 문학 단체의 양대 축을 형성했고, 1995년 기관지 『민예』와 『민족문화회보』의 발간, 1996년 영·호남문학인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2년엔 목포문협 주최 제1회 소영 박화성 선생 기념 백일장 대회가 열렸으며, 향토문화관에 ‘박화성 문학기념관’이 설치되었다. 1993년엔 목포시립도서관이 주최하는 제1회 목포시민 백일장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1995년 4월 15일에는 문학과지성사 김병익 대표를 비롯한 김현문학비 건립위원회 주최로 향토문화관 트랙에서 김현문학비 제막식이 있었으며, 전날인 4월 14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전야제 형식의 ‘목포 문학의 밤’이 열렸다. 19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주간목포』에 목포 시단 100년을 진단하며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김선태 시인의 「목포 출신 시인 산

책』이 연재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 각종 시 낭송회, 문학의 밤, 문학 세미나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2) 주요 문인 활동

(1) 황현산 - 탁월한 번역가이자 문학평론가

황현산(黃炫山, 1945~)은 목포에서 태어나 문태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1982년 번역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1984년 파스칼 피아의 『아뵐리네르』를 펴내면서 번역가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0년 문예진흥원이 펴내는 『문화예술』에 번역론을 써서 발표하면서 뒤늦게야 문학 평론가로 입문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늦깎이이자 등단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은 문인의 전형이다. 이후 왕성한 저술 활동으로 김현 이후 한국이 낳은 최고의 평론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정년퇴임하고 한국번역비평학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제22회 팔봉비평문학상, 제20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림 7 황현산(『세계일보』)

황현산은 여러 모로 동향의 선배 평론가인 김현과 겹치는 점이 많다. 목포문태고등학교와의 인연이 있는 점이 그렇고(김현은 잠깐 입학했다가 그만 두었음), 일찍부터 목포를 떠나 서울에서 활동했기에 뒤늦게야 목포문단에 알려진 점이 그렇고, 프랑스문학을 전공한 번역가이자 평론가라는 점이 그렇다. 특히 두 사람은 문체에 있어서 좋은 대비가 된다. 김현이 명료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비평을 창작에 기생하는 장르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 끌어올렸다면, 그는 '진실을 꿰뚫으면서도 해석의 여지와 반성의 겨를을 누리는 새로운 문체'로 독자들로 하여금 지적이면서도 다층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다.⁶⁹⁾

그가 펴낸 저서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론집으로 『말과 시간의 깊이』(2002), 『잘 표현된 불행』(2012)이 있으며, 번역서로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집』(2005), 드니 디드로

69) 『주간경향』1126호 2015. 05. 19. 박상미, 「황현산·정산, 한국에서 유일한 '평론가 형제'」. 문단에서는 이 두 사람의 평론 문체를 각각 '김현체'와 '황현산체'로 별칭하고 있다.

의 『라모의 조카』(2006), 발터 벤야민의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 /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외』(2010)와 공동 번역서 기욤 아폴리네르의 『알코올』(2010),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2012),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2015),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2015),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의 『악의 꽃』(2016)이 있다. 또 산문집으로 한때 인구에 회자됐던 『밤이 선생이다』(2013), 『우물에서 하늘 보기』(2015)가 있는데, 앞으로는 목포에 관한 산문집을 펴낼 예정이다.

(2) 김재석 - 다산성의 시인

김재석(金在碩, 1955~)은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1982년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마리아회고 교사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목포에 살고 있는 시인이다. 1990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으며, 2008년엔 『유심』에 시조가 당선되기도 했다. 『까마귀』 등 10여 권의 시집을 단시간에 펴내어 다산성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시조집으로는 『내 마음의 적소, 동암』(필명: 김해인) 등이 있다. 지금은 전업시인으로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다.

(3) 김선태 - 목포 시단의 아웃사이더

김선태(金善泰, 1960~)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목포대에 입학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목포에 살고 있는 시인이자 평론가이다.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시, 『현대문학』에 시와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동백숲에 길을 묻다』 등 5권, 평론집으로 『풍경과 성찰의 언어』 등 2권을 출간했다. 그는 목포 문단 활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대신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목포 문학관 등에서 시 창작반을 열어 목포문단의 새로운 문학층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목포 시단의 아웃사이더’ 혹은 ‘목포 문단의 쓴 소리’로 불린다. 애지문학상, 영랑시문학상, 전라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으며,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미래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비상),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천재교육)에 시 3편이 수록되기도 했다. 계간 『시와사람』 편집주간, 계간 『내일을여는작가』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목포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4) 황정산 - 등단제도 거부한 평론가이자 시인

황정산(黃正山, 1958~)은 목포에서 태어나 문태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및 같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한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이다. 등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1994년 『창작과 비평』에 평론을, 2002년 『정신과 표현』에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작가론 김수영 총서』, 『쉽게 쓴 문학의 이해』, 『주변에서 글쓰기』 등을 펴냈다. 부드러운 외모에 비해 날카로운 비평가로 알려

져 있으며, 평론가 황현산의 동생으로서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현재 대전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월간 『우리詩』 부주간, 계간 『애지』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5) 서영채 - 김현과 비견되는 목포 출신 평론가

서영채(1961~)는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졸업한 문학 평론가이다. 황현산·황정산처럼 등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1990년대 중반에 문예지 등에 문학평론을 발표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비록 목포 문단과의 인연이 전무하여 생소하지만, 김현과 비교될 정도로 따듯하고 아름다운 문체와 치밀한 비평 논리로 1990년대부터 이어진 한국의 비평 침체기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소설의 운명』, 『문학의 윤리』 등을 펴냈으며, 2005년 올해의 예술상 문학 부문을 수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3) 주요 문학 활동

(1) 목포민예총 문학위원회 출범

1993년 12월 목포민예총 문학위원회(초대 위원장: 김주완)가 ‘민족문학과 지역문학의 중흥과 창달’을 내걸고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 목포문협 중심이었던 문학 단체가 좌우 균형을 맞추게 됐다. 강흐들, 김주완, 유종화, 이기봉, 문영란, 김성호, 이수행, 박관서, 고운, 김승필, 최정윤, 정경이 등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목포민예총 문학위원회는 매년 여름 대반동 해수욕장에서의 해변시 낭송회와 남도 푸른시 낭송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연간문예집 『민예』와 『민족문학회보』를 발간했다.

(2) 김현문학비 제막식 및 기념 전야제

1990년 48세라는 짧은 나이로 타계한 불세출의 목포 출신 평론가 김현을 기리기 위한 김현문학비 제막식이 문화과지성사 김병익 대표를 비롯한 김현문학비 건립위원회 주최로 1995년 4월 15일 향토문화관 트랙에서 열렸다. 전날인 4월 14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전야제 형식의 ‘목포 문학의 밤’이 목포MBC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하·최하림 시인의 문학강연과 황동규·황지우·김혜순 시인 그리고 목포 거주 시인들의 시 낭송회가 있었다. 아울러 제막식이 끝난 후 김병익 대표는 목포 문학 중흥을 위해 창작기금 1천만 원을 목포문협에 전달했다.

(3) 영·호남문학인대회 개최

1996년 11월 30일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와 목포민족문학작가회의가 주관하는 영·호남문학인대회가 남경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영남과 호남 문인들의 상호 교류와 우의를 다지기 위한 이 문학인대회는 목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4) 각종 시 낭송회 등 활발

1990년대는 각종 시 낭송회 등이 유독 활발히 열려 시 낭송 붐이 일어난 시기였다. 1990년 흑조시동인회가 1월 ‘신년시의 밤’, 7월 ‘흑조시낭송회’, 12월 ‘시의 밤’, 12월 ‘25주년 송년시의 밤’ 등을 잇달아 열었다. 1991년 8월 전남시인협회가 ‘해변 시낭송회’를, 1994년 10월 목포시문학회가 ‘시와 함께 시인과 함께’ 시 낭송회와 11월 시의 날 기념 ‘목포시낭송회’를 각각 열었다. 1996년 8월에는 목포문협과 전남시협 공동 주최로 ‘시로 찾아가보는 목포의 뱃길 백리’ 선상 시 낭송회를, 5월 전남 청소년 시 낭송회와 서울문학동인회가 시 낭송회를 열었다.

이 밖에 1991년 목포 지역 방송통신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글문학회 ‘터’(회장-원순주)가, 1996년 이해용, 안정배, 홍미희 등 목포대 국문과를 졸업한 젊은 문인들이 ‘문학회 뿔’을 각각 창립했다.

(5) 「목포 출신 시인 산책」 연재

1999년 10월부터 김선태 시인이 목포 시단 80년을 진단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목포문단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목포 출신 시인 산책」을 『주간목포』에 연재했다. 목포 출신 주요 시인 2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대표시를 중심으로 시세계의 면모를 촌철살인의 언어로 파헤친 이 연재물은 목포 시단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목포 문단의 폐쇄성에 예리한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건전한 비평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연재물은 2000년 6월까지 8개월간 지속됐다.

(6) 시인학교 개교·『문학과 세상』 창간

1997년 목포민예총 문학 위원회가 목포 지역의 젊은 시인들 중심으로 문학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문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인학교’(학교장: 김선태)를 열었다. 1999년에는 명칭을 ‘문학아카데미’로 변경하고 제1회 시 창작 아카데미 개최했다. 1999년 12월에는 기관지 『문학과 세상』 창간호를 펴냈는데, 2003년부터는 격년간 『목포작가』로 제호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등단 문인

조기호(『조선일보』-동시), 김재석(『세계의문학』-시), 장근양(『스포츠서울』-추리소설), 이생연(『문학세계』-시), 김선태(『광주일보』·『현대문학』-시, 평론), 정순열(『세계일보』-희곡), 우영숙(『동양문학』-수필), 고복록(『문학세계』-시), 최완복(『월간문학』-시), 이태웅(『한국시』-시), 최추자(『한국시』-시), 고규석(『경향신문』-시조), 강성상(『한국시』-시), 박주익(『시세계』-시), 고재복(『문학춘추』·『시세계』-시), 이윤정(『문예한국』-시), 장희(『광주일보』-시), 박관서(『삶, 사회 그리고 문학』-시), 강흐들(『시세계』-시), 안효순(『한겨레문학』-시), 이수행(『광주일보』-시), 최훈주(『우리문학』-시), 유종화(『시인과사회』-시), 김영균(『우리문학』-시), 김희저(『창조문학』·『세계일보』-소설), 김영진(『우리문학』-평론), 김영천(『문학세계』·『한국시』-시), 김혜경(『문학춘추』·『한국시』-시), 박행자(『한국시』·『해동문학』-시), 안정환(『문학춘추』·『순수문학』·『시문학』-시), 고정선(『시세계』-시), 이명길(『문학춘추』-시), 박미경(『우리문학』-시), 유용남(『시세계』-시), 임용운(『겨레시조』-시조), 강영애(『문학춘추』-시), 서재복(『문학21』-시), 김용원(『세기문학』·『문학춘추』-시), 김문옥(『창조문학』-시), 박시린(『한국시』-시), 전상동(『아동문학』-동시), 김병남(『한국시』-시), 권기태(『아동문예』-동시), 정대성(『아동문예』-동시), 김상근(『문학춘추』·『순수문학』-시), 김동하(『한겨레문학』-시), 신화금(『시문학』-시), 유태원(『문학세계』-시), 서영호(『문학세계』-시), 최현규(『문학춘추』-시), 최기종(무크지-시), 박남인(『노들』·『시대문학』-시), 안정배(『전남일보』-시), 김화영(『창조문학』-시), 강영애(『문학춘추』-시), 김순의(『문학춘추』-시), 이미경(『시와사람』-시), 이순희(『문학춘추』-시), 김병화(『문학21』-시), 김문희(『문학시대』-소설), 김소남(『아동문학』-동시), 김동길(『문학춘추』-시), 전상동(『아동문학』·『한국시』-동시, 시), 전경란(『지구문학』-시), 강경숙(『세기문학』-시), 정인태(『지구문학』-시) 등.

9. 모색기(2000~2010년대 전반기)

1) 개관

새로운 천년의 벽두에 해당하는 2000~2015년까지는 정보 매체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변화의 시대로 요약된다.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이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과 지역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목포에도 많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다. 대불공단과 신행만이 조성되었고, 전남도청의 이전 등으로 인해 도심이 하당이나 남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예술의 거리’가 조성됨에 따라 문화의 중심도 오거리 일대에서 갯바위 일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초·중반

기에 활동했던 문인들도 대부분 작고하게 되면서⁷⁰⁾ 목포문단도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 오랜 침체가 계속되었던 목포 문학도 바야흐로 암중모색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문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달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기존의 막연한 호기심이나 취미로서의 글쓰기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과 방법론을 터득하여 글을 쓰기 위한 각종 문예창작강좌가 속속 개설되었다.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현대시 창작반, 목포시인학교, 목포 문학관 문예대학 시·소설 창작반, 목포공공도서관 바다문학교실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예비하는 문학 지망생과 등단 문인(중고 문인)이 크게 늘었지만, 젊고 가능성이 있는 신인들이 드물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중앙 문인을 초청하여 특강이나 강연을 듣는 등 중앙 문단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예술의 거리 조성과 더불어 전국 최초의 복합문학관인 목포 문학관이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목포문화재단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들어서 문학인들의 창작과 문학 단체별 행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목포 문학관에서는 목포 문학상을 제정·시상함은 물론 매년 김우진문학제, 박화성문학페스티벌, 김현문학제, 차범석연극공연을 개최하고, (재)목포문화재단에서는 격년 문학작품집 『문학목포』와 기관지 『예향』을 발간하게 되었다. 2001년엔 목포민예총 문학 위원회가 (사)민족문학작가회의 목포지부(현 목포작가회의)로 공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점은 1990년대에 이어 시낭송 단체와 시낭송가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들 단체가 개최하는 시 낭송회가 시시때때로 열려 시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시조로 등단한 문인들이 많이 나타나 시조문학의 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00~2015년은 목포 문학이 오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암중모색이 어느 때보다 다채롭게 펼쳐졌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문인 활동

(1) 정경진 - 2000년대 목포 희곡문학의 기대주

정경진(1965~)은 목포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21』에 동화와 수필로 신인상을 수상했고, 2008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되면서 등단한 희곡작가이자 소설가이다. 목포MBC 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 극작가이자 소설가, 연극 대본 및 시나리오 작가, 스토리텔링 작가 등 다양한

70) 2000년대 들어 유명을 달리한 문인들도 많았다. 예술원회장을 지낸 한국사실주의 연극의 완성자로 평가받던 차범석이 유명을 달리했고, 이생연, 최일환, 김종두, 최병두, 김동하 시인 등도 세상을 떠났다. 2015년 현재 생존 원로 문인은 수필가 김학래, 시인 최재환, 시인 이영식 정도이다.

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차범석 이후 이렇다할만한 극작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는 목포 희곡의 새로운 기대주이다. 장편소설 『푸르른 날에』, 희곡집 『붉은 꽃 푸른 메아리』 등을 펴냈으며, 2009년 제3회 차범석 희곡상 등을 수상했다.

(2) 박성민 - 2000년대 목포 시조문학의 가능성

박성민(朴誠旼, 1965~)은 목포에서 태어나 문태고등학교와 목포대 국문과를 거쳐 중앙대 문창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2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200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조가 당선되면서 등단한 시인이다. 시조집으로 『쌍봉낙타의 꿈』 등이 있으며, 제2회 천강문학상 우수상, 가람시조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3) 주요 문학 활동

(1) '목포작가회의' 공식 출범

2000년 3월 목포민예총 문학위원회가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목포지부(약칭, 목포작가회의)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사무국장: 이수행)를 결성한 다음 2001년 11월 공식 출범하게 되었으며, 2007년 11월에는 재차 개명하여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지회 산하 목포지부(초대 지부장: 유종화, 사무국장: 박관서)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 이로써 목포작가회의는 기존 등록되어 활동하던 목포 문인 10여 명에 무안, 신안, 영암, 함평, 진도 등 서남권 지역의 문인 30여 명을 합하여 총 40여 명으로 구성된 진보 문인단체가 되었다.

목포작가회의는 2002년에 제1회 도서지역 청소년 문학워크숍, 4.8독립만세운동을 기념 제1회 전국청소년백일장, 5·18민중항쟁 추모 거리시화전, 제1회 다도해여름문학학교, 제1회 섬 지역 찾아가는 문학 교실 등 다채로운 문학 행사를 펼쳤다. 2003년 12월에는 기관지 『문학과세상』 창간, 2005년에는 청소년 문학지 『다도해 푸른작가』를 창간하고 4호까지 발간하였다. 2007년부터는 김현문학축전을 매년 주관하고 있으며, 2006~2008년에는 전국 간이역 시노래 콘서트, 2013~2016년에는 대전부르스와 목포의 눈물 백년의 만남전(대전작가회의와의 문인교류대회), 1999년부터 문학아카데미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 문예창작강좌 개설·중앙문단과의 교류 활발

1996년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현대시 창작반(지도: 허형만·김선태·이대흠)이 처음 개설된 데 이어 1999년 문학아카데미(지도: 목포작가회의), 2004년 목포시인학교(지도: 허형만·김선태), 2007년

목포 문학관의 문예대학 시·소설 창작반(시: 김선태·김재석, 소설: 천승세), 2014년 목포공공도서관 마린창작동아리(지도: 김선태·곽의진·이대흠) 등이 지속적으로 개설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학 창작 학습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강좌는 목포 문단의 새로운 문학층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이들 강좌에서 초청한 고은, 김지하, 김병익, 황현산, 황동규, 김광규, 이근배, 오세영, 정과리, 이승원, 김사인, 이문재, 문태준, 함민복 등 서울의 유명 문인들이 수시로 목포를 방문함에 따라 목포문단과 중앙문단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3) ‘목포문학관’ 개관·‘목포문화재단’ 창립



그림 8 2007년에 개관한 전국 최초의 복합문학관 ‘목포 문학관’ 전경

2007년 10월 9일 목포시가 목포의 문학적 전통을 보전·계승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복합문학관인 ‘목포문학관’을 지어 개관했다. 예술의 거리 언덕(목포시 남농로 95)에 들어선 목포문학관은 원래 1991년 개관한 ‘박화성문학기념관’을 현재 장소로 옮기고, 여기에 목포 출신 작고 문인 김우진·차범석을 추가하여 3인실로 확장한 것이다. 2010년에는 김현실을 새로 추가하여 2015년 현재 4인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문학체험실, 세미나실, 문학창작실, 문학인 사랑방 등을 갖추고 목포 문학의 센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천승세·김지하·최하림·황현산 등 문학관에 들어가야 할 문인들이 수도룩하여 추가 증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 문학관은 2008년부터 문예대학을 개설·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김우진문학제(주관: 김우진연구회), 박화성문학페스티벌(주관: 박화성연구

회), 김현문학제(주관: 목포작가회의), 차범석연극공연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목포 문학축전과 목포 문학상을 제정·시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6년에는 (재)목포문화재단이 창립(초대이사장: 정종득)되어 문인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문화행사를 지원하게 되었다. 오거리문화센터(구 동본원사) 옆에 별채를 지어 들어선 목포문화재단은 그간 목포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 격년으로 문학 작품집 『문학목포』를 발간해오고 있다.

(4) ‘목포문학상’ 제정·시상

2009년 목포 문학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한국문단을 이끌어갈 참신한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한 목포 문학상이 제정·시상됐다. 이로써 목포는 단일도시로선 몇 안 되는 문학상을 보유하게 됐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 문학관이 주관하는 이 문학상은 처음엔 총 6개 분야(시, 단편소설, 희곡, 문학평론, 동화 혹은 동시, 수필)로 나누어 전국의 미등단자 및 등단 5년 이내 신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는데, 2015년부터 5개 분야(문학평론 제외)로 축소하고, 본상(전국 대상)과 남도작가상(전라남도 대상)으로 상을 구분하였으며, 상금도 대폭 확대하였다.⁷¹⁾ 분야별 상금은 본상 소설이 1,000만원(남도작가상 500만원), 본상 시·희곡·수필·동시 혹은 동화가 각 500만원(남도작가상 각 300만원)이다.

(5) 시조시인 대거 등단

2000년대 들어 목포 문단에 시조문학의 봄이 일어났다. 그동안 근대문학도시인 목포에 한시를 하는 문학단체인 ‘목포시사’가 존속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조를 쓰는 시인들이 손으로 꼽을 만큼 드물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기이하고도 반가운 현상이다.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다가 시조로 다시 등단한 사람들이 상당수여서 더욱 그렇다. 2000년대 들어 등단한 시조시인은 다음과 같다. 김재석(2008년 『유심』 신인문학상), 박성민(200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오천수(2010년 『시조시학』), 유현(2011년 『월간문학』 신인상·2012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강성희(2012년 『시조시학』), 용창선(201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등.

(6) ‘박화성문학전집’ 전 20권 발간

2004년 목포 출신 대표문인의 표상이자 한국여성소설의 대모로 불리는 소영 박화성의 문학전집이

71) 2016년부터는 목포문학상의 특성을 살리고, 이 지역 문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응모작품을 목포 관련 소재로 제한할 예정이다.

초당대 서정자 교수(박화성연구회장)에 의해 푸른사상사에서 전 20권으로 집대성되었다.

(7) 시낭송 단체 증가 및 시낭송의 생활화

1990년대부터 시낭송회가 자주 열리는가 싶더니 2000년대 들어서자 아예 전문 시낭송 단체가 여럿 생기고 시낭송 관련 행사가 헤아릴 수 없이 열리고 있다. 이는 시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목포가 유독 그렇다. 마치 시낭송 붐이 일어난 듯하다. 2015년 현재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낭송 단체로 ‘전남재능시낭송회’(회장: 주봉길), ‘목포소리꽃세상’(회장: 이미란), ‘아리랑시낭송회’(회장: 정서경) 등이 서로 경쟁하듯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단체를 통해 낭송가로 데뷔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또한 목포시문학회가 1996년부터 열어온 ‘선상 시 낭송회’를 비롯한 목포공공도서관의 ‘찾아가는 시낭송회’, 목포작가회의의 ‘전국 간이역 시 노래 콘서트’ 등 무수한 시 낭송회가 시시때때로 열렸다.

(8) 문학동인회 ‘창’·‘시아문학회’·‘유달문학회’ 등 창립

1994년 모임을 시작했던 ‘글사랑’ 동인(강영애, 김영란, 김화영, 서두인, 서경자, 이미경, 이순남 등)이 2001년 그 명칭을 ‘창’ 문학동인회로 바꾸고 새롭게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은 1997년 동인지 『글사랑』을 펴낸 이후 2015년 현재 제18집까지 발간하고 있다.

2011년 문학카페 ‘시와 찾잔 사이’를 결성했던 오형록, 이상석, 이순애, 최재길 등이 2012년 공식 명칭을 문학동인회 ‘시아문학’으로 변경하고, 2013년부터 『시아문학』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찾아가는 시낭송회, 시화전, 문학 기행 등 다채로운 활동도 펼치고 있다.

2014년에는 예향 목포가 낳은 훌륭한 문인들의 문학정신을 이어받고,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유달문학회’가 결성됐다. 이영식, 김호남, 김수기, 조기호 등 12명으로 구성된 이 동인회는 목포청소년문학상 백일장대회를 운영하고, 문학동인지 『유달문학』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9) 서산동 ‘명품시화골목’ 조성

2015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이 인문도시목포사업(단장: 강봉룡 교수)의 일환으로 목포의 대표적인 어촌이자 달동네인 서산동에 명품시화골목을 조성했다. 목포의 시인들(책임: 김선태)과 화가들(책임: 정태관)이 서로 만나 서산동과 온금동을 테마로 조성한 이 시화골목은 사업 1차년도인 2015년에는 주로 목포문인협회 소속 시인들이 쓴 시를 전시했으며, 2차년도인 2016년도엔 목포작가회의 소속 시인들과 주민들의 시화를, 3차년도인 2017년도엔 주로 목포 출신 작고 시인들의 시를

영구 전시할 계획이다. 이 명품시화골목이 완성되면 근천스럽다고 하여 재개발 지역으로 낙인찍힌 서산동 골목 일대가 통영의 ‘동피랑’에 버금가는 문화관광의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등단 문인

정경란(『광주매일』·『무등일보』·『시와사람』-시), 한보리(『문학과세상』-시), 안오일(『전남일보』-시, 『푸른문학』-동화), 김창묵(『한울문학』-시), 임점호(『문예사조』-수필), 강해자(『대한문학세계』-시), 윤경관(『문학과예술』-시), 서은철(『현대문예』-시), 김경애(『문학과예술』·『대한문학세계』-시), 고미선(『문학마을』-시), 김혜자(『서울문학』-시), 김향숙(『한울문학』-시), 박준상(『지구문학』-시), 정정길(『신동아』-논픽션), 강경숙(『세기문학』-시), 김준귀(『한울문학』-시), 김찬율(『문학춘추』-수필), 유종(『문학』·『광주전남작가』-시), 김성호(『호남신문』-시), 임혜주(『무등일보』-시), 정경이(『전남일보』-시), 유현(『월간문학』·『국제신문』-시조), 박승자(『광주일보』·『시안』-시), 박애경(『아동문예』-동시, 『시와경계』-시), 정경진(『전남일보』·『차범석희곡상』·『목포 문학상』-희곡), 박창복(『서정과상』-시), 백정희(『농민신문』-소설), 강성희(『시조시학』-시조), 김충경(『인간과문학』-시), 김희정(『문학춘추』-시), 조대현(『한국평화문학』-시), 김진호(『서정과상』-시), 이순애(『한국수필』-수필), 박성민(『서울신문』-시조), 김경수(『4.3문학상』-시), 유영곤(『불교문예』-시), 박미경(『정신과표현』-시), 조대현(『삶이 보이는 창』-시), 김선숙(『삶이 보이는 창』-시), 정영숙(『시와사람』-시), 문영란(『문학세계』-시), 정성숙(『한국소설』-소설), 양승희(『목포작가』-수필), 양원(『시와문화』-시), 이해정(『목포 문학상』-소설), 김대호(『목포작가』-시), 김화영(『창조문학』-시), 김재영(『시와사람』-시) 등.

김선태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